

발간등록번호

31-9700329-000708-14



naboo  
2009~2013년  
세수추계 분석

2009. 11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2009 ~ 2013년  
세수추계 분석**

**2009. 11.**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http://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발 간 사

세수추계는 나라살림의 근간을 이루는 조세수입의 규모를 예측하는 일입니다. 규모 있는 살림살이를 위하여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예측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세입 및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최근의 상황에서 세수추계의 정확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이전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지난해까지 경제분석실 「세입세제분석팀」에서 세제분석과 세수추계를 모두 담당하였지만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세수추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입세제분석팀」을 「세제분석팀」과 「세수추계팀」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국회예산정책처가 보유하고 있는 국세추계 모형을 보다 개선하여 엄밀한 국세추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수추계에서는 이전에 통합하여 다루었던 사회보장기여금과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을 보다 세분화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써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이후 여섯 번째이면서 「세수추계팀」으로서는 첫 번째 보고서인 「NABO 2009~2013년 세수추계 분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보다 과학적인 세수추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도모하여 국가재정 정책을 입안하고 운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NABO 2009~2013년 세수추계 분석」 보고서가 국회의원님들에게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9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혜룡

# 목 차

요 약 / 3

## I. 서 론

### II. 경제여건 및 전망

1. 거시경제여건 및 전망 .....	21
2. 세외수입 여건 .....	26

### III. NABO 총수입 전망

1. 2009~2010년 총수입 전망 .....	33
가. 국세수입 전망 .....	33
나. 사회보장기여금 전망 .....	41
다.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전망 .....	43
2. 중기 총수입 전망 .....	45
가. 국세수입 전망 .....	46
나. 사회보장기여금 전망 .....	52
다.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전망 .....	55

## IV. NABO와 행정부 총수입 비교

1.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 .....	61
가. 2009년 국세수입 전망 .....	61
나. 2010년 국세수입 전망 .....	65
다. 2009~2013년 총수입 전망 .....	69
2. NABO와 행정부 전망 비교 .....	71
가. 2009~2010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	71
나. NABO와 행정부 중기 총수입 전망 비교 .....	74
다. NABO와 행정부 국세부담률 전망 비교 .....	76
라. NABO와 행정부의 전망 차이 분석 .....	77

##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 85

부 록 / 89

## 표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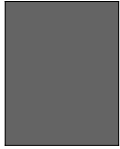
[표 II-1] NABO 세수추계를 위한 거시경제 변수 가정(1) .....	23
[표 II-2] NABO 세수추계를 위한 거시경제 변수 가정(2) .....	25
[표 II-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예산(일반·특별회계) 세외수입 차이 .....	28
[표 III-1] 2009년 NABO 국세수입 세목별 전망 .....	38
[표 III-2] 2010년 NABO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 .....	41
[표 III-3] 2009~2010년 사회보장기여금 전망 .....	43
[표 III-4] 2009년 및 2010년 중앙정부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전망 .....	44
[표 III-5] 2009~2013년 NABO의 총수입 전망 .....	46
[표 III-6] 2009~2013년 국세수입 중기전망 .....	47
[표 III-7] 소득세수 중기전망 .....	48
[표 III-8] 법인세수 중기전망 .....	49
[표 III-9] 부가가치세수 중기전망 .....	49
[표 III-10] 교통에너지환경세 중기전망 .....	50
[표 III-11] 관세 중기전망 .....	51
[표 III-12] 경상 GDP 증가율과 탄성치 .....	51
[표 III-13] 사회보장기여금 전망 .....	53
[표 III-14] 2009년~2013년 중앙정부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전망 .....	57
[표 IV-1] 행정부 2009년 국세수입 세목별 전망 .....	64
[표 IV-2] 행정부 2010년 국세수입 전망의 전체 .....	65
[표 IV-3] 행정부 2010년 국세수입 세목별 전망 .....	68
[표 IV-4] 행정부 중기(2009~2013년) GDP 증가율 전망 .....	69
[표 IV-5] 행정부 중기(2009~2013년) 총수입 전망 .....	70
[표 IV-6] 행정부 중기 부담률 전망 .....	71
[표 IV-7] NABO와 행정부의 2009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	72
[표 IV-8] NABO와 행정부의 2010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	73
[표 IV-9] NABO와 행정부의 중기 총수입 전망 비교 .....	75
[표 IV-10] NABO와 행정부의 국세부담률 비교 .....	77

[표 IV-11] NABO와 행정부의 실질 및 경상 GDP 증가율 .....	79
[표 A-1] NABO 국세수입 추계모형 추정결과 .....	92
[표 A-2] 세수추계 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대한 설명 .....	94
[표 A-3] 이자수입 전망결과 .....	97
[표 A-4] 공무원 및 복지기금 기여금 전망결과 .....	97
[표 A-5] 한국은행의 정부세입 납부액(한은잉여금) 추이 .....	98
[표 A-6] 한국은행의 당기순익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 추이 .....	98
[표 A-7] 여타 세외수입 전망결과 .....	101
[표 A-8] 중앙정부 자본수입 전망결과 .....	101
[표 A-9] 재정용자지출과 재정용자회수 .....	103
[표 A-10] 재정용자지출과 재정용자회수 전망 .....	108



## 그림 목차

[그림 II-1] 연도별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 .....	26
[그림 II-2] 기금적립금 및 금리 추이 .....	27
[그림 II-3] 벌금 및 수금 .....	28
[그림 III-1] 사회보장기여금 전망 .....	54
[그림 III-2] 사회보장기여금 부문별 전망 .....	54
[그림 III-3] 중앙정부 세외수입 전망(GDP 대비비중) .....	56
[그림 IV-1] NABO와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 비교 .....	75
[그림 A-1] 이자수입 .....	95
[그림 A-2] 융자금리와 회사채 수익률 .....	96
[그림 A-3] 수수료·요금 등 비영업적 판매 실적 .....	99
[그림 A-4] 벌금 등 추이(GDP 대비 비중) .....	100
[그림 A-5] 재정용자지출과 재정용자회수 .....	104
[그림 A-6] 재정용자지출 단순이동평균 .....	105
[그림 A-7] 재정용자회수 전망식의 계수값 .....	106
[그림 A-8] 재정용자회수 전망결과 .....	107



요약

## 요 약

### 거시경제 여건

- 2009~2013년 기간 중 경상 GDP는 연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2009년에는 부진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6% 중반대로 확대
  - 실질 GDP는 동기간 중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위기 여파로 부진한 2009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부문별로 경상민간소비는 연평균 5.0%, 경상건설투자는 연평균 5.9%, 경상설비투자는 연평균 5.9% 그리고 경상 총수출과 총수입은 각각 연평균 5.5%와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회사채금리(3년물, AA-)는 2009년 5.9%를 기록하고 2010년 이후에도 6% 내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원/달러환율(평균)은 2009년 1,286원에서 경상수지 흑자 유지에 힘입어 2013년 1,055원으로 중기 기간 중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그 외 취업자는 2009년 소폭의 감소에서 벗어나 2010년 이후 1% 내외의 낮은 증가세를 보이며, 임금은 2010년 4% 중반에서 2013년 5% 중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 여건

-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발발에 따른 기금운용수익 감소, 공기업 민영화 일정 불투명 등의 영향으로 세외수입 여건 악화
  
- 2008 ~ 2009년 중 기금운용수입이 큰 폭 감소

-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 이후 실적이 급감하였으며 최근까지도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향후 금융시장 회복에 따라 기금운용 수익률은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나,
  - 2008 ~ 2009년의 기금운용수입 실적 급락은 향후 투자여력을 감소시켜 기금운용수입 증가세의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
- 적립단계에 있는 국민연금 적립금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리 수준이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 기금운용수입의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
- 회사채금리(%): (80년대)15.4 (90년대)14.0 ('00 ~ '08)6.2 ('09 ~ '13)5.9
- 공기업 민영화 일정 불투명
- 금융위기로 산업은행 등 공기업 민영화 일정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공기업 주식매각수입 확보 불투명
- 여타 세외수입의 GDP 대비 탄성치 하향 안정화
- 벌금 및 수금은 1990년대 GDP 대비로 빠르게 증가하다가 2001년 이후 안정세

## 2009년 총수입 전망

- NABO는 국세에서 9개의 세목에 대하여 경상 GDP 등의 거시경제변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 모형을 구축하여 전망
- 소득세는 신고분과 원천분으로 구분되므로 전년도와 당해년도 경상 GDP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
  - 법인세도 신고분과 원천분으로 구분되므로 전년도와 당해연도의 경상 GDP에 의해 결정되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환율에 의해서 기업의 수익이 결정되는 것을 고려
  - 부가가치세는 당해연도의 경상 GDP와 수입에 의해 결정되고,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설비투자는 환급을 해주고 있음을 감안

- 2009년 국세수입은 164조 1,489억원으로 2008년 실적 167조 3,057억원보다 1.9% 감소하고, 2009년 예산 164조 17억원보다 0.1% 높게 전망됨
  - 일반회계 세입은 157조 3,746억원으로 2008년 실적대비 2.1% 감소하고 2009년 예산대비 0.02% 많을 것으로 예상
  - 특별회계 세입은 6조 7,743억원으로 2008년 실적대비 2.9% 증가하고 2009년 예산대비 1.7% 높을 것으로 전망
- 소득세는 33조 9,641억원으로 2008년 실적대비 6.6% 감소하고 2009년 예산대비 6.3% 낮을 것으로 전망
  - 2008년도 경상 GDP 성장률이 5%였던 것에 반해 2009년도 경상 GDP 성장률 전망은 1.9%로 낮아진 것이 세수감소 요인들 중 하나
  - 2009년 소득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개편 세수효과 4.2조원을 차감
- 법인세는 35조 2,010억원으로 전망되어 2008년 실적대비 10.1% 감소하고 예산 대비 9.2% 높을 것으로 보임
  - 2008년 중 법인들의 영업이익률이 전년대비 7.9% 감소하고 세전순이익률은 전년대비 48.9% 감소하는 것이 법인세수 감소 원인들 중 하나
  - 2009년도 법인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개편 세수 효과 3.8조원 차감
- 부가가치세는 45조 52억원으로 2008년 실적대비 2.7% 증가하고, 예산대비 1.4% 낮을 것으로 전망
  - 2009년 하반기에 경제가 소폭 회복되고 있지만 환급이 발생하는 설비투자가 7.9% 감소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도 14.2% 감소로 전체
  - 세제개편 세수감소 효과 7,400억원을 반영
- 2009년 사회보장기여금은 33조 7,960억원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7%, 2009년 예산대비 1.3% 증가한 수준임

- 국민연금이 23조 6,750억원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하고, 고용보험이 4조 1,670억원으로 5.0% 증가하고 사학연금이 1조 1,560억원으로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산재보험은 4조 7,960억원으로 전년대비 1.0%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09년 중앙정부 세외수입은 50.7조원(GDP 대비 4.9%)으로 행정부 예산(52.8조원)대비 2.0조원 낮은 수준
  - 2008년 하반기 발발한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23.6조원)에 비해 1.9조원 낮은 21.7조원으로 전망된 데 기인
- 2009년 중앙정부 자본수입(2.1조원)·융자회수(21.9조원)·기업특별회계 총수입(5.8조원)은 행정부의 예산을 반영

## 2010년 총수입 전망

- 2010년 국세수입은 167조 4,813억원으로 전망되어 2009년 예산대비 2.1% 증가하고 2009년 NABO 전망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일반회계 세입은 160조 9,458억원으로 전망되어 2009년도 NABO 전망치대비 2.3% 증가
  - 특별회계 세입은 6조 5,355억원으로 전망되어 2009년 예산대비 1.9% 감소하고 2009년 NABO 전망대비 3.5% 감소
- 소득세는 36조 1,273억원으로 전망되어 2009년 예산 대비 0.4% 감소하고 2009년 전망치대비 6.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전망치대비 2010년 소득세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2010년 경상성장률 전망이 2009년도 1.9%에서 6.4%로 확대되는데 기인하며, 그 외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 5.6조원을 반영

- 법인세 34조 6,202억원은 2009년 예산 대비 7.4% 증가하고 2009년 전망치대비 1.6%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
  - 2009년 세제개편 중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 부활 등으로 인해 약 5.2조원의 법인세수 증가효과가 나타나지만, 2008년 이전의 세제개편을 포함하면 약 5.1조원의 감세효과가 발생
- 부가가치세수는 46조 3,034억원으로 2009년 예산 대비 1.5% 증가하고 2009년 전망치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0년 경상 GDP가 6.4% 증가하고 수입은 9.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은 3.5% 증가하고, 환급이 발생하는 설비투자자는 6.3% 증가하여 2008년 이전 수준을 회복될 것으로 전제
- 사회보장기여금은 34조 6,220억원으로 전망되어 2009년 전망치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민연금이 24조 1,490억원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하고, 산재보험이 4조 9,560억원으로 3.3% 증가하고, 고용보험이 4조 2,920억원으로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사학연금은 1조 2,260억원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앙정부 세외수입은 50.8조원(GDP 대비 4.6%)으로 한은잉여금 수입 감소(1.5조원) 등의 영향으로 2009년 전망치대비 0.1조원 증가에 그칠 예상
  - 이는 행정부 예산(51.0조원)에 비해서는 0.2조원 낮은 수준
- 중앙정부 자본수입은 2009년 대비 1.4조원 증가한 3.5조원으로 전망
  - 자본수입 증가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유물 매각 수입 증가(0.8조원)에 주로 기인
- 융자회수와 기업특별회계 총수입은 각각 24.5조원, 6.1조원으로 전망

## 중기 총수입 전망

- 2009~2013년 기간 중 국제수입은 연평균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일반회계 세입은 2009년 157.4조원에서 2013년 201.4조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하고 특별회계 세입은 6.8조원에서 8.2조원으로 연평균 4.8% 증가로 예상
- 소득세는 2009년 34.0조원에서 2013년 51.1조원으로 2009~2013년 중 연평균 10.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09년에 소득세수가 감소하는 원인은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와 더불어 2008년의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 소득세 인적공제와 각종 공제 한도의 상향조정 등 세수감소 정책에 기인
- 법인세수는 2009~2013년 기간 중 35.2조원에서 44.4조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09년에 시행된 법인세제 개편으로 인해 2010년 이후 매년 약 10조원에 이르는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sup>1)</sup>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하반기부터 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으나, 2009년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대응 조치로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이 진행되어 내년도 법인세수는 감소 폭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 부가가치세수는 2009년 45.0조원에서 2013년 54.8조원으로 2009~2013년 기간 중 연평균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1)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영환·신영임(2009)을 참조할 것



[국세 주요 세목 중기 전망]

(단위: 조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증가율
국세	27.8(0.4)	28.7(3.1)	30.4(6.0)	32.7(7.7)	35.0(6.9)	5.9
소득세	34.0(-6.6)	36.1(6.4)	39.6(9.6)	45.0(13.7)	51.1(13.6)	10.8
법인세	35.2(-10.1)	34.6(-1.6)	35.2(1.7)	40.7(15.6)	44.4(9.0)	6.0
부가가치세	45.0(2.7)	46.3(2.9)	48.6(5.0)	51.7(6.4)	54.8(5.9)	5.0

주: ( )안의 수치는 증가율임

- 2009 ~ 2013년 기간 중 사회보장기여금은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총수입보다 낮은 증가율임
  - 사회보장기여금은 2010년 2.4% 증가한 34조 6천억원, 2011년 4.6% 증가한 36조 2천억원, 2012년 5.3% 증가한 38조 천억원 그리고 2013년 5.9% 증가한 40조 3천억원으로 예상
  - 부문별로 국민연금은 연평균 4.0% 증가하여 2013년 27조 9천억원
  - 산재보험은 연평균 4.0% 증가하여 2013년 5조 9천억원, 고용보험은 연평균 4.8% 증가하여 2013년 5조원
  - 사학연금은 연평균 6.8% 증가하여 2013년 1조 5천억원

[사회보장기여금 중기 전망]

(단위: 증가율, %)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09~13	'10~13	'04~08
국민연금	3.0	2.0	4.2	5.0	5.6	4.0	4.2	8.0
산재보험	-1.0	3.3	5.6	5.9	6.4	4.0	5.3	14.5
고용보험	5.0	3.0	4.9	5.4	5.9	4.8	4.8	8.9
사학연금	5.5	6.0	6.6	7.3	8.8	6.8	7.2	6.8
전체	2.7	2.4	4.6	5.3	5.9	4.2	4.5	9.7

- 2009~2013년간 중앙정부 세외수입은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재산수입은 2009~2013년간 7.5% 증가하여 경상성장률을 다소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이자수입은 국민연금 등 적립금 증가로 2009~2013년간 연평균 9.3%의 다소 높은 증가세
  - 이자수입을 제외한 기타 세외수입은 경상성장률에 대한 탄성치의 하향 안정세 등의 영향으로 경상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 중앙정부 자본수입은 2009년 2.1조원에서 2010~2012년간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유물 매각대 수입의 증가로 3.5조원 내외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가 2013년 2.3조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융자회수는 2009년 21.9조원에서 2010년에는 기업은행 주식매각 수입 증가 등으로 24.5조원으로 증가
  - 2011년 이후 2013년까지 25조원 내외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 기업특별회계 총수입은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중앙정부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중기 전망]

(단위: 조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증가율 (04-08)	증가율 (09-13)
I. 중앙정부 세외수입 (GDP 대비)	50.7 (4.9)	50.8 (4.6)	55.6 (4.7)	59.5 (4.7)	64.1 (4.8)	(7.6)	(6.0)
1. 재산수입	23.9	23.8	27.1	29.3	32.0	(5.8)	(7.5)
1.1 정부출자수입	0.6	0.8	0.8	0.8	0.8	(24.5)	(8.8)
1.2 기타재산수입	23.4	23.0	26.3	28.5	31.2	(5.0)	(7.5)
관유물대여료	0.1	0.2	0.2	0.2	0.2	(17.6)	(2.1)
한은잉여금	1.5	0.0	0.0	0.0	0.0		
이자수입	21.7	22.9	26.1	28.3	31.0	(8.5)	(9.3)
2. 수수료·요금· 비산업적 판매	5.8	5.6	6.0	6.4	6.8	(10.0)	(4.1)
3. 벌금 및 수금	14.6	14.8	15.7	16.7	17.9	(10.0)	(5.2)
4. 공무원연금기여금	6.4	6.5	6.8	7.1	7.4	(5.9)	(3.8)
II. 중앙정부 자본수입 (GDP 대비)	2.1 (0.2)	3.5 (0.3)	3.7 (0.3)	3.9 (0.3)	2.3 (0.2)	(10.3)	(2.5)
III. 융자회수 (GDP 대비)	21.9 (2.1)	24.5 (2.2)	25.9 (2.2)	26.3 (2.1)	26.7 (2.0)	(-2.1)	(5.1)
IV. 기업특별회계총수입 (GDP 대비)	5.8 (0.6)	6.1 (0.5)	6.4 (0.5)	6.8 (0.5)	7.3 (0.5)	(1.9)	(6.0)

**NABO와 행정부 총수입 전망 비교**

- NABO는 2009년도 국세수입 규모를 164조 1,489억원으로 전망하여 행정부의 164조 6,382억원보다 4,893억원(0.3%) 낮음
  - 일반회계 세입은 NABO가 행정부보다 0.5% 낮게 전망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NABO가 행정부보다 3.7% 높게 전망되었음
  - 행정부가 NABO보다 높게 전망한 세목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4개 세목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개의 주요 세목의 세수에서 행정부가 NABO보다 높거나 거의 동일하게 전망한 것은 2009년도 하반기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회복되거나 최소한 경기저점을 벗어날 것으로 행정부가 예상하는 것으로 판단
- 2010년도 국세수입은 NABO가 167조 4,813억원으로 전망하여 행정부의 168조 6,203억원보다 1조 1,390억원 작게 예상
  - 일반회계 세입은 NABO가 행정부보다 0.4% 낮게 전망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NABO가 행정부보다 6.6% 낮게 전망하였음
  - 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6개 세목에서 행정부가 NABO보다 세수를 높게 전망
- 2009 ~ 2013년까지 NABO는 총수입이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행정부는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0.7%p 낮음
  - NABO의 국세수입 전망은 연평균 6.3% 증가하고 행정부는 연평균 7.5% 증가할 것으로 예상
  - NABO의 국세외수입은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행정부와 동일하게 예상
- NABO와 행정부 사이의 국세부담률 차이는 0.2 ~ 0.4%p로 나타났음
  - NABO는 국세부담률이 2009년의 15.7%에서 2011년의 15.0%로 점차 감소하다 2012년의 15.4%, 2013년의 15.6%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행정부는 국세부담률이 2009년의 15.9%에서 2011년까지 15.3%로 감소하다가 2012년 15.6%, 2013년에 16.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NABO의 국세부담률과 비슷한 추이를 보임

[NABO와 행정부의 중기 총수입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p)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NABO (A)	총수입	278.4	286.9	304.2	327.7	350.3	5.9
	국세수입	164.1	167.5	176.3	193.0	209.6	6.3
	국세외수입	114.3	119.5	127.8	134.6	140.7	5.3
행정부 (B)	총수입	280.4	287.8	309.5	337.6	361.7	6.6
	국세수입	164.6	168.6	182.1	199.8	219.5	7.5
	국세외수입	115.8	119.2	127.4	137.8	142.2	5.3
차이 (A-B)	총수입	-2.0	-0.9	-5.3	-9.9	-11.4	
	국세수입	-0.5	-1.1	-5.8	-6.8	-9.9	
	국세외수입	-1.5	0.3	0.4	-3.2	-1.5	
차이율	총수입	-0.7	-0.3	-1.7	-2.9	-3.1	
	국세수입	-0.3	-0.7	-3.2	-3.4	-4.5	
	국세외수입	-1.3	0.2	0.3	-2.3	-1.0	

주: 2009년도 행정부 총수입은 행정부 국세수입 전망 164.6조원을 사용하여 재계산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9.

대한민국정부,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

- 2009~2013년 기간 중 NABO와 행정부의 국세수입 및 총수입 전망을 비교한 결과, 행정부가 국세수입과 총수입을 상대적으로 높게 전망
  - 이러한 차이는 세수추계 모형 및 방식에서 차이도 있겠지만, 세수추계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여건에 대한 전망의 차이에 주로 기인
- 2009~2013년 기간 중 행정부는 경상 GDP의 연평균 증가율을 7.3%, NABO는 6.5%로 전망하여, 행정부가 NABO보다 0.8%p 높은 낙관적인 가정

- 실질 GDP의 연평균 증가율은 행정부가 4.7%, NABO가 4.1%로 전망하여 0.6%p의 차이를 보임
- 상대적으로 높은 경상 GDP 증가율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국세수입을 포함하는 총수입은 예상보다 적은 수준에 그쳐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행정부의 경제전망은 보다 보수적일 필요성이 있으며, 보수적인 전망에 입각해 세수전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NABO와 행정부의 실질 및 경상 GDP 전망 비교]

(단위: %, %p)

	실질 GDP			경상 GDP		
	NABO (A)	행정부 (B)	차이 (B-A)	NABO (A)	행정부 (B)	차이 (B-A)
2009	-1.0	-1.5	-0.5	1.9	1.1	-0.8
2010	3.8	4.0	0.2	6.4	6.6	0.2
2011	3.9	5.0	1.1	6.1	7.6	1.5
2012	4.2	5.0	0.8	6.5	7.6	1.2
2013	4.5	5.0	0.5	6.9	7.6	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9.

대한민국정부, 『2009 ~ 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

I

서론

# I. 서 론

정확한 세수전망은 재정정책을 입안하고 운용하는 데 출발점이 된다. 세수를 과대 추계하는 경우 행정부의 재정운용이 방만해질 가능성이 높아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세수가 과소 추계되는 경우 실제 필요한 부문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게 되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가 행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통제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하여 엄밀한 세수전망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출범이후 행정부의 세수전망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국회예산정책처는 보다 전문적인 세수추계를 위하여 2009년 중반 세수추계팀을 독립시키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였다. 둘째, NABO는 자체적으로 국세 및 총수입 추계모형을 구축하여 국세 및 총수입을 추계하였으며, 올해부터는 국세이외 사회보장기여금을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그리고 사학연금 등 각 연금 및 보험별로 모형을 구축하고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도 세분화하여 모형별로 추계하는 등 보다 정밀한 세수추계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세수 구성요소 중에서 주요 세목별로 결정요인 및 특성 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여 엄밀한 세수추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노력과 성과는 국회가 독자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제해 나가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의미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상의 성과를 발전시켜 행정부의 세수전망에 대한 정확한 평가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본 국회예산정책처가 노력한 결과물이다. 지난 수개월 동안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수입, 사회보장기여금과 세외수입 전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및 보완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행정부의 세입전망을 엄밀히 평가 및 분석하고 나아가 독자적인 세입전망을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가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및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평가하고 국회의 재



정통제권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장의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세수추계의 배경으로서 경제적 여건과 전망을 소개하였다. III장에서는 2009~2013년의 세수를 추계하였다. 구체적으로 총수입을 국세, 사회보장기여금 그리고 세외수입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도 세분화하여 모형을 추정하고 이를 통하여 전망하였다. IV장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총수입을 비교 설명하였다. 행정부의 중기 총수입 전망을 소개하고 NABO의 총수입 전망결과와 비교 및 분석하여 예산안분석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부록에서는 국세와 세외수입 등의 전망 방법과 모형추정 결과들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 II

# 경제여건 및 전망

1. 거시경제여건 및 전망
2. 세외수입 여건

## II. 경제여건 및 전망

### 1. 거시경제여건 및 전망

세목별 세수추계 모형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미래 세수를 전망하기 위하여 모형에서 설명변수에 대한 전망치가 필요하다. 모형에서 포함된 설명변수들 중에서 거시경제 변수들은 경상가격기준 GDP, 소비, 건설 및 설비투자, 총수출 및 총수입이 들어가며, 그 외 GDP 디플레이터, 금융시장에서 원/달러환율, 회사채 및 국채 금리, 노동시장에서 취업자 및 임금 등이 요구된다. 이들 거시경제 변수들의 미래 가정에 대하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경제 전망치를 사용하였다.<sup>2)</sup>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실질 GDP는 2009년 금융위기 영향의 여파로 실물경제가 부진하여 1.0% 감소하겠지만 2010년 3.8% 증가로 회복되고 2011년에도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다소 확대되어 2012년 4.2% 그리고 2013년에는 4.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9~2013년 중기 전체적으로 실질 GDP는 연평균 3.1% 증가하여 지난 중기인 2004~2008년의 연평균 4.2%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위기 여파로 실질 GDP가 감소한 2009년을 제외하고 2010~2013년 기간만을 고려한다면 연평균 4.1% 증가하여 이전 중기의 증가세와 비슷하게 전망되었다.

경제전체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는 2008년 2.7% 상승에서 2009년 3.1% 상승으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0년 2.5% 상승으로 둔화되고 2011~2013년 기간 중에는 2% 초반대의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2009~2013년 중기 전체적으로 GDP 디플레이터는 연평균 2.4% 증가하여 지난 중기인 2004~2008년의 연평균 1.7%보다

2) 국회예산정책처, 「NABO 중기경제전망 2009~2013년」, 2009. 10.

증가세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급등하여 GDP 디플레이터가 높아진 2009년을 제외하고 2010~2013년 기간만을 고려한다면 연평균 2.2% 증가하여 이전 중기의 증가세를 소폭 하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실질 GDP에 물가상승을 감안한 경상 GDP는 2009년 금융위기 영향의 여파로 실물경제가 부진하여 1.9% 증가에 머물러 2008년의 5.0%에 비하여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2010년에는 본격적인 경제회복으로 실질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서 6.4%의 증가율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후 경상 GDP 증가율은 2011년 6.1%로 소폭 둔화되지만 2012년 6.5% 그리고 2013년 6.9%로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GDP 디플레이터가 2%대 초반의 일정한 상승세를 보이겠지만 실질 GDP의 증가세가 3%대 후반에서 4%대 중반으로 확대되는데 기인하고 있다. 2009~2013년 중기 전체적으로 경상 GDP는 연평균 5.6% 증가하여 지난 중기인 2004~2008년의 연평균 5.9%보다 증가세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위기 여파로 낮은 증가율을 보인 2009년을 제외하고 2010~2013년 기간만을 고려한다면 연평균 6.5% 증가하여 이전 중기의 증가세보다 소폭 높게 전망되었다.

총수요 구성 중에서 경상 민간소비는 2009년 1.5% 증가에 머물렀지만 이후 회복되면서 2010년 5.5%와 2011년 5.4%로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12년에는 경상 민간소비가 6.0%, 2013년에는 6.4%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2013년 중기 전체적으로 경상 민간소비는 연평균 5.0% 증가하여 지난 중기인 2004~2008년의 연평균 5.8%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위기 영향을 받는 2009년을 제외하고 2010~2013년 기간만을 고려한다면 연평균 5.8% 증가하여 이전 중기의 증가세와 비슷하게 전망되었다.

경상 건설투자는 2009년 4.4% 증가하겠지만 2010년 5.1%로 높아지고, 이후 2011년 6.2%, 2012년 6.9% 그리고 2013년 6.7%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3년 중기 전체적으로 경상 건설투자는 연평균 5.9% 증가하여 지난 중기인 2004~2008년의 증가세와 비슷하게 전망되었다.

경상 설비투자는 2009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7.9%나 감소하겠지만 2010년 6.3% 증가하여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2011년 8.5%, 2012년 9.7% 그리고 2013년 12.8%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3년 중기 전체적으로 경상 설비투자는 연평균 5.9% 증가하여 지난 중기인 2004~2008년의 5.6%보다 증가세가 소폭 높아지며 2009년을 제외한 2010~2013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9.3%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 외 경상 총수출은 세계경제 침체로 2009년 5.5% 감소하겠지만 2010년 2.3% 증가로 전환되고 2011년 6.5%, 2012년 11.4% 그리고 2013년 12.7%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9~2013년 기간 중 연평균 5.5% 증가에 머물러 이전 2004~2008년의 연평균 15.4%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II-1] NABO 세수추계를 위한 거시경제 변수 가정(1)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9~13	04~08
실질경제성장률	2.2	-1.0	3.8	3.9	4.2	4.5	3.1	4.2
경상경제성장률	5.0	1.9	6.4	6.1	6.5	6.9	5.6	5.9
민간소비	5.2	1.5	5.5	5.4	6.0	6.4	5.0	5.8
건설투자	8.4	4.4	5.1	6.2	6.9	6.7	5.9	5.9
설비투자	6.4	-7.9	6.3	8.5	9.7	12.8	5.9	5.6
총수출	32.4	-5.5	2.3	6.5	11.4	12.7	5.5	15.4
총수입	40.6	-12.4	4.6	7.9	10.6	12.5	4.6	17.5
GDP디플레이션	2.7	3.1	2.5	2.1	2.2	2.2	2.4	1.7

주: 1. 2008년의 수치는 실적치,

2. 음영표시 수치는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 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국회예산정책처, 「중기경제전망 2009~2013년」, 2009. 10.

경상 총수입은 국내경제 부진으로 2009년 12.4% 감소하겠지만 2010년 4.6% 증가로 전환되고 2011년 7.9%, 2012년 10.6% 그리고 2013년 12.5%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3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4.6% 증가하여 이전 2004~2008년의 연평균 17.5%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금융시장에서 회사채금리(3년 물, AA-)는 2009년 5.9%로 2008년의 7.0%에서 하락하고, 2010년 이후에도 6%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채금리(3년 물)는 2009년 4.1%를 기록하고 2010~2011년 중 소폭 상승한 4.8%를 유지하고 2012년 4.9%와 2013년 5.0%로 전망된다. 한편 원/달러환율(평균)은 금융위기 영향에 따른 불안을 반영하여 2009년 1,286원으로 전년(1,101원)보다 16.8% 급등하겠지만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의 확대로 2010년 1,186원(-7.8%)으로 낮아지고 2011년 1,128원(-4.9%), 2012년 1,055원(-5.9%) 그리고 2013년 1,055원(-0.6%)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시장에서 취업자는 2009년 중 실물경제 부진으로 소폭 감소(-0.6%)하겠지만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2010년 0.7% 증가로 전환되고 2011~2013년 중에는 연평균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이전 중기 2004~2008년 기간 중의 연평균 1.3%보다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이다. 임금(전산업)도 2009년 소폭(-0.1%) 감소하겠지만 경제회복과 함께 2010년 4.5% 증가로 전환되고 2011년 4.6% 증가하고 이후 2012년 5.1% 그리고 2013년 5.6%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부문에서 미 달러화기준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경제 수요가 부진하여 2009년 중 전년대비 14.7% 감소하겠지만 2010년 14.3% 증가로 회복되고 이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9~2013년 기간 전체로는 연평균 7.1% 증가에 머물러 이전 2004~2008년의 연평균 17.4%보다 증가세가 둔화되겠지만 2009년을 제외한다면 연평균 1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달러화기준 수입은 금융위기 영향으로 인한 내수부진에 기인하여 2009년 중 전년대비 25.2% 급감하겠지만 2010년에는 국내 실물경기 회복으로

19.8% 급등하고 이후에는 12~14%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9~2013년 기간 전체로는 연평균 6.7% 증가에 그쳐 이전 2004~2008년의 연평균 19.6%보다 증가세가 둔화되겠지만 2009년을 제외한다면 연평균 14.6%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2009년 중 내수부진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상대적으로 더 급감하는데 힘입어 340억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이후 국내 수요 증가세와 원화가치의 상승세에 따라 수입이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여 흑자 규모가 2013년 91억달러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09~2013년 기간 전체로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연평균 160억달러를 기록하여 이전 2004~2008년의 연평균 96억달러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2] NABO 세수추계를 위한 거시경제 변수 가정(2)

(단위: %, 원, 억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9~13	04~08
소비자물가	5.1	2.8	2.5	2.5	2.7	2.8	2.7	3.2
회사채금리	7.0	5.9	5.9	5.9	6.0	6.1	6.0	5.5
국고채금리	5.3	4.1	4.8	4.8	4.9	5.0	4.7	4.7
취업자	-1.0	-0.6	0.7	1.0	0.9	1.0	0.6	1.3
실업률	3.2	3.7	3.5	3.3	3.4	3.3	3.4	3.5
임금	3.4	-0.1	4.5	4.6	5.1	5.6	3.9	5.7
원/달러환율	1101	1286	1186	1128	1061	1055	1143	1031
경상수지(억달러)	-64	340	147	108	112	91	160	96
수출(미달러화)	14.3	-14.7	14.3	10.6	12.4	12.8	7.1	17.2
수입(미달러화)	21.8	-25.2	19.8	12.1	12.7	14.0	6.7	19.6

- 주: 1. 2008년의 수치는 실적치,  
 2. 음영표시 수치는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임  
 3. 수출과 수입은 국제수지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 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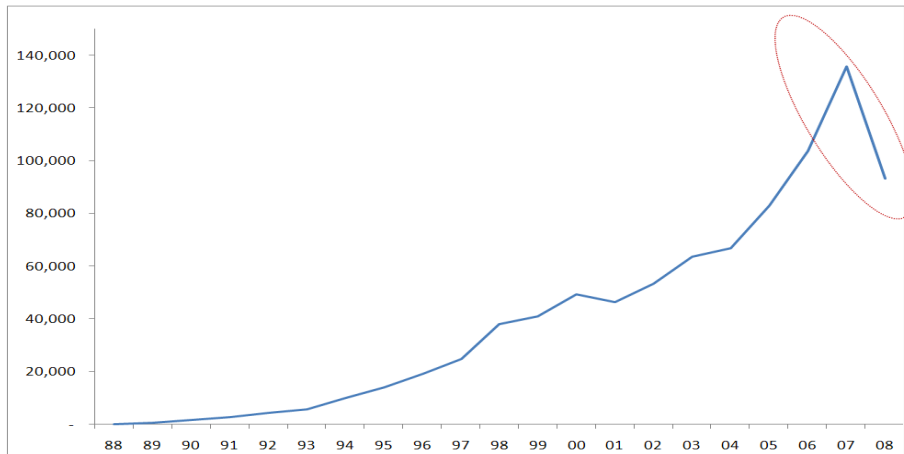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 「중기경제전망 2009~2013년」, 2009. 10.

## 2. 세외수입 여건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로 세외수입 여건도 국세수입과 마찬가지로 악화되었다. 첫째, 중앙정부 세외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금운용수입의 경우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 하반기 이후 수입 실적이 급감하였으며, 최근 까지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적이다. 2009년 8월 중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의 누적 진도율(실적/연간예산)은 59.9%로 예년수준(83.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림 II-1] 연도별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

(단위: 십억원)



주: 현금주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시가로 표시된 운용수익과 다름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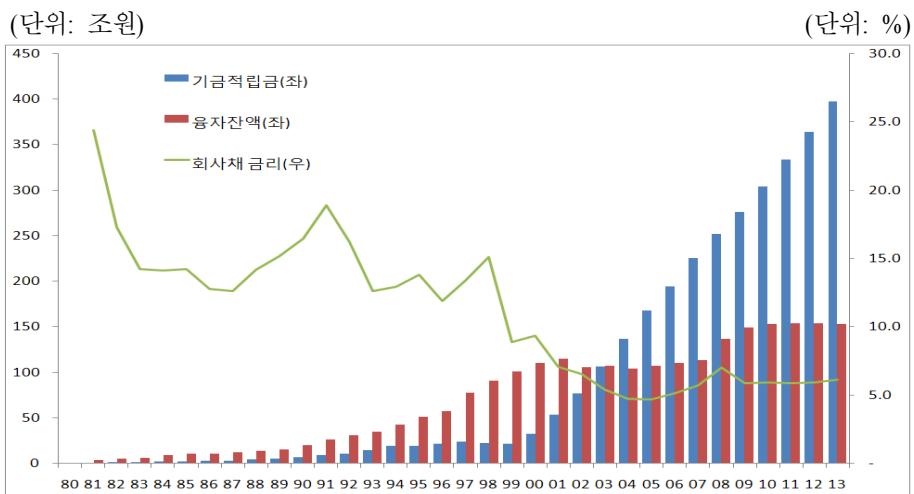
향후 금융시장의 회복에 따라 기금운용 수입 수익률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8~2009년의 기금운용수입의 실적 급락에 따른 베이스 침식은 향후 투자여력을 감소시켜 기금운용수입 증가세의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향후 금리수준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금운용수입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채 이자율은 1990년대 14.0%대에서 2000~2008년 중 6.2%대로 하락하였으며, NABO 중기 거시경제전망에 의하



면 2009~2013년 중에는 5.9%대에서 안정화될 전망이다. 아직 적립단계에 있는 국민연금 적립금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년에 비해 낮은 금리 수준이 기금적립금의 누적적 증가에 따른 기금운용수입 증가세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금운용수입의 증가율은 예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2] 기금적립금 및 금리 추이



주: 2009년 이후는 전망

셋째, 공기업 매각수입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세외수입에 공기업 매각수입을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세외수입은 상승 폭이 후반기로 갈수록 확대되어 2012년 34.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민영화가 완료되면서 세외수입의 상승폭이 커지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표 II-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예산(일반·특별회계) 세외수입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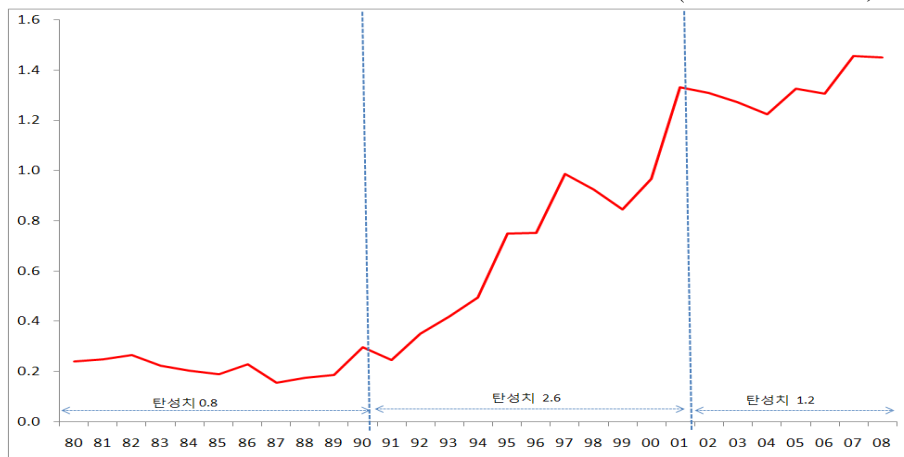
(단위: 조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08~12 계획(A)	21.4	21.5	23.7	27.6	34.4		
(증가율)		(0.5)	(10.2)	(16.5)	(24.6)		(12.6)
09~13 계획(B)		21.5	23.3	24.2	28.8	28.5	
(증가율)			(8.4)	(3.9)	(19.0)	(-1.0)	(7.3)
차이(B-A)		0	-0.4	-3.4	-5.6	na	

그러나 금융위기로 산업은행 등 공기업 민영화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공기업 주식가치도 하락함에 따라 당초 계획상의 세외수입 확충방안의 달성 가능성 여부도 불확실해졌다. 이에 따라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예산 부분 세외수입은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다 상당 폭 낮은 수준으로 수정되었다3).

[그림 II-3] 벌금 및 수금

(단위: GDP 대비, %)



- 3) 공기업 민영화 수입 규모에 대한 정보 입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세외수입과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세외수입간의 차이 중에서 공기업 민영화 지연 및 주식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차이만을 구분하기는 곤란하였다.

넷째, 여타 세외수입의 GDP 대비 탄성치도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 향후 세외수입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 세외수입 가운데 이자수입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벌금 및 수금이다. 2008년 결산상 벌금 및 수금은 총 중앙정부 세외수입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벌금 및 몰수금의 과거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대 중 GDP 대비하여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 빠르게 증가하였다. 1990~2001년 중 벌금 및 몰수금의 경상 GDP에 대한 탄성치는 2.60에 달하였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이러한 높은 탄성치는 안정화되어 2001~2008년 중에는 1.2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 III

---

## NABO 총수입 전망

---

1. 2009 ~ 2010년 총수입 전망
2. 중기 총수입 전망

### III. NABO 총수입 전망

#### 1. 2009 ~ 2010년 총수입 전망

##### 가. 국세수입 전망

###### (1) 전망 방법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9개의 세목의 세수를 경상 GDP,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 및 수입, 환율 등과 같이 각 세목별로 세입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시경제 변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 모형을 구축하여 전망하고 있다.

주요 세목별로 추정에 사용된 거시경제 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는 신고분과 원천분으로 구분되고, 신고분은 전년도 소득에 대해 부과되고 원천분은 당해연도의 소득에 부과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전년도 경상 GDP와 당해년도 경상 GDP에 주로 결정된다. 그리고 법인세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분과 원천분으로 구분되고, 신고분과 원천분 법인세수는 전년도와 당해연도의 경상 GDP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환율에 의해서는 기업의 수익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을 하였다.

부가가치세는 당해연도에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거래되는 용역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수는 당해연도의 경상 GDP와 수입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설비투자는 환급을 해주므로 이들 변수는 부가가치세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을 하였다. 개별소비세는 민간소비에 의해 주로 결정되고, 소비자물가지수 그리고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를 결정하는 금리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을 하였다. 주세 역시 개별소비세와 마찬가지로 민간소비에 의해 주로 결정되고, 주류소비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맥주세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에 의해 결정되고, 관세는 원화로 평

가된 수입금액 규모와 실효관세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전망 유종별 수요량에 각 유종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수를 전망하였다.<sup>4)</sup> 인지세와 상속증여세는 자산의 거래나 자산의 가치에 의해 세수가 결정되므로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시경제 변수로 경상 GDP를 선택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전망은 과세대상자의 세대별 부동산 보유 현황, 공시가격, 과표적용률 등 미시자료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러한 자료를 자체적으로 전망하기에는 자료나 인력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수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전망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부가세(surtax)인 농어촌특별세는 내국세 및 지방세 그리고 관세를 포함하는 조세감면액, 저축감면,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취득세, 레저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부과된다. 농어촌특별세의 세수는 과세표준별 과세비율의 평균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또 다른 부가세인 교육세와 과년도 수입은 경상 GDP에 대한 탄성치를 이용하여 전망하였다.

## (2) 2009년 국세수입 전망

2009년도 국세수입은 161조 1,489억원으로 전망되어 2008년 실적 167조 3,057억원보다 1.9% 감소하고, 2009년 예산 164조 17억원보다 약 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별로는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157조 3,746억원으로 2008년 실적 160조 7,197억원보다 2.1% 감소하고 2009년 예산 157조 3,388억원보다 358억원(0.02%) 많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별회계 세입은 6조 7,743억원으로 2008년 실적 6조 5,860억원보다 2.9% 증가하고 2009년 예산 6조 6,629억원보다 1.7% 높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9년도 국세수입을 세목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는 33조 9,641억원으로 2008년 실적 36조 3,551억원에 비해 6.6% 감소하고

4) 교통에너지환경세수 전망 시 사용하는 유종별 수요량은 전체 수요량에서 면세유 부분을 제외한 수요량이다.

2009년 예산 36조 2,553억원에 비해서는 6.3%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 수가 2008년 실적에 비해 감소한 가장 주요한 원인은 2008년도 경상 GDP 성장률이 5%였던 것에 반해 2009년도 경상 GDP 성장률 전망은 1.9%로 낮아지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기본세율 인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 인하(100% → 80%), 인적공제 제도 및 각종 공제제도의 한도가 상향조정되는 등 2008년도 세제개편을 포함하여 2009년 소득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개편 세수효과 4.2조원을 차감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법인세수 전망 35조 2,010억원은 2008년 실적 39조 1,545억원 보다 10.1% 감소하고 예산 32조 2,270억원 대비 9.2%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당해 연도 법인세수는 전년도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과세하므로 전년도 기업들의 영업실적에 따라 좌우된다.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2008년의 법인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0%로 전년도 5.4% 대비 7.9% 감소하였고, 세전순이익률은 2.9%로 2007년 5.6%에서 48.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법인들의 실적이 전년도 비해 감소하는 것이 법인세수가 감소한 것의 원인들 중 하나로 볼 수 있다.<sup>5)</sup> 또한 2009년도 법인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개편에 따른 영향도 세수감소의 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기준이 1억원에서 2억원 상향조정되고 낮은 과세표준 구간(2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이 13%에서 11%로 2%포인트 인하되고, 최저한세율 인하, 그리고 각종 공제제도가 세수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 등 세제개편 세수감소 효과 3.8조원을 적용한 것도 세수감소의 원인 중에 하나이다.

상속증여세는 3조 398억원으로 전망되어 전년도 실적 2조 7,771억원 대비 9.5% 증가하고 예산 3조 7,573억원 대비 19.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업상속 공제율을 20%에서 40%로, 그 한도를 30억원에서 60~100억원으로 확대하고,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당해 주택가액의 40% 공제하는 등의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130억원을 적용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45조 52억원으로 2008년 실적 43조 8,198억원 대비 2.7%

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

증가하고, 예산 45조 6,369억원 대비 1.4%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기로 침체되었던 경제가 2009년도 하반기부터 소폭이나마 성장하고, 설비투자는 2008년의 6.4%에서 -7.9%로 급감하고, 수출 역시 14.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부가가치세 환급 규모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규모가 줄어들어 부가가치세 증가의 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2009년 부가가치세수 전망은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율 확대, 일부 유아용품에 대한 면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확대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개편으로 인해 7,40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개별소비세는 3조 6,525억원으로 전망되어 2008년 실적 4조 4,994억원 대비 18.8% 감소하고, 예산 4조 4,153억원 대비 17.3%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소비세는 민간소비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8년의 민간소비 증가율이 5.2%였는데 반해 2009년도는 1.5% 정도에 그치는 것이 세수감소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009년 개별소비세 세수전망은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용 유류세 인하,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등 2009년 세수에만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제개편과 함께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 인하, LPG(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하 등 영구적으로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개편 세수효과 약 7,900억원을 차감한 것이다.

증권거래세 2조 8,495억원은 2008년 실적 2조 7,875억원에 비해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예산 3조 2,594억원에 비해 12.6% 낮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증권거래세의 세수가 전년대비 증가하는 2009년도 상반기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주가상승률이 전년대비 각각 23.6%와 46.1%를 시현하며 세계 55개 증권시장 중에서 24위를 차지하고, 상장주식 회전율이 코스피시장에서는 332.7%와 코스닥시장에서는 670.4%로 전년에 비해 148.9%포인트와 237.9%포인트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장주식회전율(%)’은 ‘당해 기간 중의 거래량 / 당해 기간 중의 평균상장주식수×100’의 산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상장주식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수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식거래대금의 증가로 이어져 증권거래세의 증가로 이어진다.



과년도 수입은 6조 8969억원으로 전망되어 2008년도 실적 3조 7589억원 대비 83.5% 증가하고, 예산 4조 1703억원 대비 65.4% 높을 전망이다. 2009년 6월 현재 과년도 수입 실적이 6조를 넘어 이미 예산 규모 4조 1,703억원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지난 10년간의 하반기(7~12월) 진도비 평균 10.6%를 이용하여 전망한 하반기 과년도 수입을 상반기 실적에 추가하여 전망하였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조 7400억원으로 전망되어 전년도 실적 11조 9093억원에 비해 1.4% 감소하고, 예산 12조 2368억원에 비해 4.1%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연중 휘발유에 적용되는 세율이 리터당 514원 529원으로 0.9% 인상되고 경유에 적용되는 세율은 367.5원에서 367.1원으로 0.1% 감소한다.<sup>6)</sup> 그리고 수요량도 휘발유가 전년대비 2% 증가하고 경유가 4.8% 감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전망치는 유류세 인하, 대중교통 물류 유가보조금 등 2009년 교통에너지환경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수감소 효과 4,400억원 정도를 적용한 것이다.

관세는 9조 157억원으로 2008년 실적 8조 7757억원보다 2.7% 증가가 하고 2009년 예산 8조 9649억원보다 0.6%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에 원화로 평가한 수입규모는 26.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실적에 비해 증가하는 이유는 실효관세율이 전년도 1.85%에서 2009년 상반기 실효관세율 2.18%로 17.8% 증가와 유류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종료한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세는 4조 2206억원으로 전망되어 2008년 실적 4조 1796억원보다 1.0% 증가하고 예산 4조 2,944억원보다는 1.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주세는 3,633억원으로 2008년도 실적 2조 8,311억원 대비 18.8% 증가하고 2009년 예산 2조 6439억원 대비 27.2%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농어촌 특별세는 3조 5,890억원으로 전망되어 2008년 실적 3조 7,549억원에 비해

6) 유종별 세율은 2009년 5월 21일에 변경이 되었는데, 연중 세율은 변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세율과 이후세율을 가중평균 하였다.

	2008.10.7	2009.5.21
휘발유	514원/리터	529원/리터
경 유	364원/리터	369원/리터

4.4% 감소하고 예산 4조 190억원에 비해 10.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 2009년 NABO 국세수입 세목별 전망

(단위: 십억원, %)

	2008 실적	2009년		실적대비		예산대비	
		예산	전망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b>총국세</b>	<b>167,305.7</b>	<b>164,001.7</b>	<b>164,148.9</b>	<b>-3,156.8</b>	<b>-1.9</b>	<b>147.2</b>	<b>0.1</b>
<b>일반회계</b>	<b>160,719.7</b>	<b>157,338.8</b>	<b>157,374.6</b>	<b>-3,345.1</b>	<b>-2.1</b>	<b>35.8</b>	<b>0.0</b>
내국세	133,725.2	130,354.5	131,214.7	-2,510.5	-1.9	860.2	0.7
소득세	36,355.1	36,255.3	33,964.1	-2,391.0	-6.6	-2291.2	-6.3
법인세	39,154.5	32,227.0	35,201.0	-3,953.6	-10.1	2974.0	9.2
상속세	2,777.1	3,757.3	3,039.8	262.7	9.5	-717.5	-19.1
부가가치세	43,819.8	45,636.9	45,005.2	1,185.4	2.7	-631.7	-1.4
개별소비세	4,499.4	4,415.3	3,652.5	-846.9	-18.8	-762.8	-17.3
증권거래세	2,787.5	3,259.4	2,849.5	62.0	2.2	-409.9	-12.6
인지세	572.9	633.0	605.8	32.9	5.7	-27.2	-4.3
과년도 수입	3,758.9	4,170.3	6,896.9	3,138.0	83.5	2726.6	65.4
교통에너지환경세	11,909.3	12,236.8	11,740.0	-169.3	-1.4	-496.8	-4.1
관세	8,775.7	8,964.9	9,015.7	240.0	2.7	50.8	0.6
교육세	4,179.6	4,294.4	4,220.6	41.0	1.0	-73.8	-1.7
종합부동산세	2,129.9	1,488.2	1,183.6	-946.3	-44.4	-304.6	-20.5
<b>특별회계</b>	<b>6,586.0</b>	<b>6,662.9</b>	<b>6,774.3</b>	<b>188.3</b>	<b>2.9</b>	<b>111.4</b>	<b>1.7</b>
주세	2,831.1	2,643.9	3,363.3	532.2	18.8	719.4	27.2
농어촌특별세	3,754.9	4,019.0	3,411.0	-343.9	-9.2	-608.0	-15.1

### (3) 2010년 국세수입 전망

2010년 국세수입은 167조 4,813억원으로 전망되어 2009년 예산 164조 17억원보다 2.1% 증가하고 2009년 NABO 전망 164조 1,489억원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회계 세입은 160조 9,458억원으로 전망되어 2009년도 예산 157조 3,388억원과 2009년 NABO 전망 157조 3,746억원 대비 각각 2.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은 6조

5,355억원으로 전망되어 2009년 예산 6조 6,629억원 대비 1.9% 감소하고 2009년 NABO 전망 6조 7,743억원 대비 3.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36조 1,273억원으로 전망되어 2009년 예산 대비 0.4% 감소하고 2009년 전망 대비 6.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부동산 양도소득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녹색금융세제 지원 신설 등의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해 약 1.2조원 정도의 세수증가 효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 인적공제 및 각종 소득공제의 확대, 양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인하, 그리고 EITC 지원 확대 등 2008년 이전의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2010년 소득세 세법개정 세수효과 -5.6조원을 반영한 수치이다. 이러한 세수효과를 반영함에 2009년 전망보다 2010년 소득세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2010년 경상성장률 전망이 2009년도 1.9%에서 6.4%로 급격한 증가를 들 수 있다.

법인세 34조 6,202억원은 2009년 예산 대비 7.4% 증가하고 2009년 전망 대비 1.6%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세제개편 중 금융기관 채권이자 소득세 원천징수의 부활 등으로 인해 약 5.2조원의 법인세수 증가효과가 나타나지만, 높은 과세표준 구간(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인하가 2010년에 시행되고 R&D 준비금 제도의 재도입, 중소기업 R&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2008년 이전의 세제개편을 포함하면 약 5.1조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한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들의 실적이 당해연도에 과세되는 대표적인 세목이므로 2009년도 법인의 실적이 2008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좀 더 나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수 전망은 46조 3,034억원으로 2009년 예산 대비 1.5% 증가하고 2009년 전망 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 대비 부가가치세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2010년에 경상성장률은 6.4% 증가하고 수입(통관기준, 원화환산)은 9.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통관기준, 원화환산)은 3.5% 증가하여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환급이 발생하는 설비투자는 6.3% 증가하여 2008년 이전 수준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0년 부가가치세는

성인을 대상으로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하는 등 2009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1,500억원 정도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으나,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회사택시 납부세액 경감률 90%로 확대 및 일몰연장, 일부 유아용품에 대한 면제 등 2008년 이전 세제개편으로 인해 약 7,8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 발생한다.

증권거래세는 3조 2,830억원으로 전망되어 2009년 예산대비 0.7%, 2009년 전망 대비 15.2%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성장률로 설명되는 증권거래대금이 2010년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일몰이 도래하는 등 세법개정 세수증가 효과 2,500억 원을 반영한 결과이다.

과년도 수입은 4조 3,288억원으로 2009년 예산 대비 3.8% 증가하지만 2009년 전망대비 34.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년도 수입은 기본적으로 탄성치를 이용하여 전망한다. 그런데 앞서도 설명하였지만 2009년도 과년도 수입이 예년과는 달리 높은 세수를 달성하였다. 따라서 2009년 예산보다 증가하지만 전망보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2조 9,235억원으로 전망되어 2009년 예산보다 5.6%, 2009년 전망보다 1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유종별 세율은 휘발유는 1.1%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경유는 2009년 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인으로는 휘발유와 경유의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휘발유는 고유가나 경기침체에 영향을 비교적 덜 받았던 제품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유는 경기회복세에 따른 화물수송의 증가로 인해 2010년에는 3.3%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세는 10조 1,403억원으로 전망되어, 2009년 예산 대비 13.1% 증가하고 2009년 전망대비 12.5%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세수의 증가는 원화로 환산한 수입규모가 전년대비 9.8%의 증가를 시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9년 세제개편으로 인한 관세 세수증가 효과 2,400억원을 포함하여 2010년에 2,9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반영한 결과이다.

[표 III-2] 2010년 NABO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

(단위: 십억원, %)

	2009년 예산	NABO 전망		예산 대비		전망 대비	
		2009년	2010년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b>총국세</b>	<b>164,001.7</b>	<b>164,148.9</b>	<b>167,481.3</b>	<b>3,479.6</b>	<b>2.1</b>	<b>3,332.3</b>	<b>2.0</b>
<b>일반회계</b>	<b>157,338.8</b>	<b>157,374.6</b>	<b>160,945.8</b>	<b>3,607.0</b>	<b>2.3</b>	<b>3,571.1</b>	<b>2.3</b>
내국세	130,354.5	131,214.7	132,550.5	2,196.0	1.7	1,335.7	1.0
소득세	36,255.3	33,964.1	36,127.3	-128.0	-0.4	2,163.2	6.4
법인세	32,227.0	35,201.0	34,620.2	2,393.2	7.4	-580.8	-1.6
상속증여세	3,757.3	3,039.8	3,318.2	-439.1	-11.7	278.4	9.2
부가가치세	45,636.9	45,005.2	46,303.4	666.5	1.5	1,298.2	2.9
개별소비세	4,415.3	3,652.5	3,929.1	-486.2	-11.0	276.6	7.6
증권거래세	3,259.4	2,849.5	3,283.0	23.6	0.7	433.5	15.2
인지세	633.0	605.8	640.5	7.5	1.2	34.7	5.7
과년도 수입	4,170.3	6,896.9	4,328.8	158.5	3.8	-2,568.1	-37.2
교통에너지환경세	12,236.8	11,740.0	12,923.5	686.7	5.6	1,183.5	10.1
관세	8,964.9	9,015.7	10,140.3	1,175.4	13.1	1,124.6	12.5
교육세	4,294.4	4,220.6	4,285.4	-9.0	-0.2	64.8	1.5
종합부동산세	1,488.2	1,183.6	1,046.1	-442.1	-29.7	-137.5	-11.6
<b>특별회계</b>	<b>6,662.9</b>	<b>6,774.3</b>	<b>6,535.5</b>	<b>-127.4</b>	<b>-1.9</b>	<b>-238.8</b>	<b>-3.5</b>
주세	2,643.9	3,363.3	3,518.8	874.9	33.1	155.5	4.6
농어촌특별세	4,019.0	3,411.0	3,016.7	-1,002.3	-24.9	-394.3	-11.6

#### 나. 사회보장기여금 전망

2009 ~ 2010년 중 사회보장기여금 전망을 살펴본다. 전망방법은 각 연금 및 보험 수입의 구조 모형을 이용하기보다 수입을 직접 추계하는 방식을 택

하였다. 각 연금 및 보험의 수입은 가입자와 임금 증가율 그리고 보험요율과 수납율에 따라 변화하게 되므로 이들 변수들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가입자 수는 취업자 변화에 연동되고 이에 각 연금 및 보험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정하였는데 취업자는 본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경제전망에 따라 2009년 0.6% 감소하고 2010년 0.7% 증가한다고 전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연금 및 보험의 가입자 수에 대한 전제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2009년 0.4% 감소하지만 2010년 0.7% 증가하며, 산재보험은 각각 6.0%와 2.0% 증가하며, 고용보험은 각각 4.0%와 1.2% 증가하며 그 외 사학연금은 각각 2.0%씩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sup>8)</sup> 임금은 2009년 0.1% 감소하지만 2010년 4.5% 증가한다고 전제하였다. 그 외 보험요율은 2009년 현재의 수준이 지속된다고 가정하였다. 즉, 국민연금은 9.0%,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 1.8%와 0.9% 그리고 사학연금은 17%이다. 마지막으로 수납율은 2008년 실적과 대비하여 2009년에는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부진을 감안하여 하락하지만 2010년에는 경제회복을 감안하여 2008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2009년 중 사회보장기여금은 총 33조 7,96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8년 32조 8,960억원 대비 2.7% 증가한 수치이며 정부의 2009년 예산대비로는 1.3% 증가한 것이다. 부문별로는 국민연금이 23조 6,750억원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재보험은 4조 7,960억원으로 전년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은 4조 1,670억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사학연금은 1조 1,560억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중 사회보장기여금은 총 34조 6,220억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에 그쳐 2009년의 2.7%보다 증가세가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실물경제의 회복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수납율도 소폭 확대되겠지만 소득기준으로 삼는 전년도 임금이 정체된데 주로 기인한다. 부문별로는 국민연금이 24조 1,490억원으로 전년대비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재보험은 4조

7) 구조모형은 과대추정되는 경향이 있었음.

8) 2009년의 가입자 수는 올해 8월까지의 통계를 감안하여 가정하였음.

9,560억원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은 4조 2,920억원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사학연금은 1조 2,260억원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3] 2009 ~ 2010년 사회보장기여금 전망 (단위: 십억원, %)

	2008 실적	2009				2010	
		예산	전망	증가율		전망	증가율
				08년 실적대비	09년 예산대비		
사회보장기여금	32,896	33,347	33,796	2.7	1.3	34,622	2.4
국민연금	22,986	23,281	23,675	3.0	1.7	24,149	2.0
산재보험	4,846	4,820	4,796	-1.0	-0.5	4,956	3.3
고용보험	3,969	4,094	4,167	5.0	1.8	4,292	3.0
사학연금	1,096	1,152	1,156	5.5	0.3	1,226	6.0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 다.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전망

2009년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은 정부의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안 작성 시점과 전망시점에 있어서 세입여건 상 차이가 나는 부분을 추가로 고려하여 전망하였다. NABO 전망에 따르면 2009년 중앙정부 세외수입은 50.7조원(GDP 대비 4.9%)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행정부 예산대비 2.0조원 낮은 수준이다.

[표 III-4] 2009년 및 2010년 중앙정부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전망

(단위: 조원, %)

	NABO 전망 (A)		행정부 예산 (B)		차이 (A-B)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I. 중앙정부 세외수입 (GDP 대비)	50.7 (4.9)	50.8 (4.6)	52.8 (5.1)	51.0 (4.6)	-2.0 (-0.2)	-0.2 (-0.0)
1. 재산수입	23.9	23.8	25.8	22.7	-1.9	1.2
1.1 정부출자수입	0.6	0.8	0.6	0.3	0.0	0.5
1.2 기타재산수입	23.4	23.0	25.3	22.3	-1.9	0.7
관유물대여료	0.1	0.2	0.1	0.2	0.0	0.0
한은잉여금	1.5	0.0	1.5	0.0	0.0	0.0
이자수입	21.7	22.9	23.6	22.2	-1.9	0.7
2. 수수료·요금·비 산업적 판매	5.8	5.6	5.8	6.2	0.0	-0.5
3. 벌금 및 수금	14.6	14.8	14.6	15.1	0.0	-0.3
4. 공무원연금기여금	6.4	6.5	6.5	7.0	-0.1	-0.5
II. 중앙정부 자본수입 (GDP 대비)	2.1 (0.2)	3.5 (0.3)	2.1 (0.2)	3.5 (0.3)	0.0 (-0.0)	0.0 (-0.0)
III. 융자회수 (GDP 대비)	21.9 (2.1)	24.5 (2.2)	21.9 (2.1)	24.5 (2.2)	0.0 (-0.0)	0.0 (-0.0)
IV. 기업특별회계총수입 (GDP 대비)	5.8 (0.6)	6.1 (0.5)	5.8 (0.6)	na		

주: 통합재정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09년 NABO의 중앙정부 세외수입과 행정부 예산상 세외수입과의 차이는 주로 이자수입 등에서 발생한다. 2009년 이자수입에 대한 행정부 예산(23.6조원)과 NABO 전망(21.7조원) 간 차이는 1.9조원에 달한다. 이자수입의 차이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보유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기금운용수입의 감소에 기인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8년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로 기금 운용수익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금 운용수입의 금년 1~8월 중 진도율을 감안하여 운용수익을 하향 조정하였다.



2009년 중앙정부 자본수입·융자회수·기업특별회계 총수입은 행정부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각각 2.1조원, 21.9조원, 5.8조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NABO 전망에 따르면 2010년 중앙정부 세외수입은 50.8조원(GDP 대비 4.6%)으로 전망되었다. 2010년 중앙정부 세외수입은 한은잉여금 수입 감소(1.5조원) 등의 영향으로 2009년 전망대비 0.1조원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2010년 행정부 예산(51.0조원)에 비해서는 0.2조원 낮은 수준이다.

2010년 중앙정부 자본수입은 2009년 대비 1.4조원 증가한 3.5조원으로 전망된다. 2010년의 중앙정부 자본수입의 증가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유물 매각 수입 증가(0.8조원)에 주로 기인한다. 2010년 융자회수와 기업특별회계 총수입은 각각 24.5조원, 6.1조원으로 전망된다.

## 2. 중기 총수입 전망

NABO에서 총수입을 전망하는 목적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수입을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NABO와 행정부에서 전망하는 총수입이 포괄하는 재정수입의 범위가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NABO에서는 국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세외수입과 자본수입 등 통합재정 상의 세입을 전망한 후, 기업특별회계 수입과 융자회수를 전망하여 행정부의 중앙정부 총수입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전망하였다.

NABO의 중기 경제전망을 전제로 2009~2013년 중기 총수입을 전망한 결과, 2009~2013년 기간 중 총수입은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세수입은 같은 기간 중 연평균 6.3% 증가되고, 국세외 수입은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5] 2009 ~ 2013년 NABO의 총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278.4 (0.4)	286.9 (3.1)	304.2 (6.0)	327.7 (7.7)	350.3 (6.9)	5.9
국세수입	164.1 (-1.9)	167.5 (2.0)	176.3 (5.3)	193.0 (9.5)	209.6 (8.6)	6.3
국세외수입	114.3 (3.9)	119.5 (4.5)	127.8 (7.0)	134.6 (5.3)	140.7 (4.5)	5.3
사회보장기여금	33.8 (2.7)	34.6 (2.4)	36.2 (4.6)	38.1 (5.3)	40.3 (5.9)	4.5
세외수입	50.7 (9.3)	50.8 (0.2)	55.6 (9.4)	59.5 (7.0)	64.1 (7.7)	6.0
자본수입	2.1 (9.4)	3.5 (67.0)	3.7 (7.1)	3.9 (5.9)	2.3 (-41.7)	2.5
융자회수	21.9 (-5.8)	24.5 (11.9)	25.9 (5.7)	26.3 (1.5)	26.7 (1.7)	5.1
기업특별회계	5.8 (5.5)	6.1 (4.6)	6.4 (6.1)	6.8 (6.5)	7.3 (6.9)	6.0

### 가. 국세수입 전망

2009년도 국세수입은 164.1조원으로 전년도 실적 167.3조원에 비해 1.9%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0년에 167.5조원, 2011년에 176.3조원, 2012년에 193.0, 그리고 2013년에는 209.6조원으로 전망되어 전년대비 각각 2.0%, 5.3%, 9.5%, 8.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3년까지 연평균 6.3%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같은 기간동안 경상 GDP 연평균 증가율 6.5%보다 약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2009년에 157.4조원, 2010년에 160.9조원, 2011년에 169.3조원, 2012년에 185.5조원, 그리고 2013년 201.4조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1%, 2.3%, 5.2%, 9.5%, 8.6%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연평균 6.4%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III-6] 2009 ~ 2013년 국세수입 중기전망

(단위: 조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증가율
국세수입 (증가율)	164.1 (-1.9)	167.5 (2.0)	176.3 (5.3)	193.0 (9.5)	209.6 (8.6)	6.3
일반회계 (증가율)	157.4 (-2.1)	160.9 (2.3)	169.3 (5.2)	185.5 (9.5)	201.4 (8.6)	6.4
내국세 (증가율)	131.2 (-1.9)	132.6 (1.0)	139.9 (5.5)	155.1 (10.9)	169.4 (9.2)	6.6
특별회계 (증가율)	6.8 (2.9)	6.5 (-3.5)	7.0 (7.8)	7.6 (7.6)	8.2 (7.7)	4.8

특별회계 세입은 2009년에 6.8조원, 2010년에 6.5조원, 2011년에 7.0조원, 2012년에 7.66조원 그리고 2013년에 8.2조원으로 전망되어 전년대비 각각 2.9%, -3.5%, 7.8%, 7.6% 7.7% 증가하고, 4.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요 세목별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4.0조원에서 51.1조원으로 연평균 10.8%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9년의 34.0조원은 2008년 36.4조원 대비 6.6% 감소하는 것이다. 2010년에는 36.1조원으로 전년대비 6.4% 증가하고, 2011년에는 39.6조원으로 전년대비 9.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2013년에는 45.0조원과 51.1조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3.7%와 13.6%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9년에 소득세수가 감소하는 원인은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와 더불어 2008년에 있는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 소득세 인적공제와 각종 공제의 한도를 상향조정한 감세정책을 들 수 있다. 전망기간이 멀어질수록 소

특세수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은 소득세수 추정에 사용된 경상 GDP의 증가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표 III-7] 소득세수 중기전망

(단위: 조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증가율
소득세	34.0	36.1	39.6	45.0	51.1	10.8
(증가율)	(-6.6)	(6.4)	(9.6)	(13.7)	(13.6)	

법인세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5.2조원에서 44.4조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9년의 법인세수는 35.2조원으로 전망되어 전년대비 1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34.6조원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세수는 35.2조원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하고, 2012년에는 40.7조원으로 전년대비 15.6%, 2013년에는 44.4조원으로 전년대비 9.0%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9년에 시행된 법인세제 개편, 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과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R&D 준비금 제도 부활 등 2008년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2010년 이후 매년 10조원을 상회하는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게다가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하반기부터 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 2009년 하반기부터는 경기의 회복이 예상되나, 법인세수는 전년도 기업의 경영실적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2010년의 법인세수까지는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의 법인세수 감소 폭이 작게 나타나는 이유는 2009년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인해 하반기부터 경기의 회복이 예상되어 내년도 법인세수의 감소 폭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에는 변화가 없고 금융기관의 법인세 납부 시점을 1년 앞당겨 법인세수를 5조원 가량 증가시키는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 제도의 부활로 인해 2010년의 법인세수 감소 폭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의 법인세수 증가 폭이 적어지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의 15.6%라는 높은 증가율은 2011년의 세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나타는 기저효과(base effect)로 볼 수 있다.9)

[표 III-8] 법인세수 중기전망

(단위: 조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증가율
법인세 (증가율)	35.2 (-10.1)	34.6 (-1.6)	35.2 (1.7)	40.7 (15.6)	44.4 (9.0)	6.0

2009 ~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수는 45.0조원에서 54.8조원으로 연평균 5.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9년에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45.0조원, 2010년에는 전년대비 2.9% 증가한 46.3조원 등 2010년까지는 2%대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2011년에 48.6조원으로 전망되어 전년대비 5.0% 증가하고, 2012년에 전년대비 6.4% 증가한 51.7조원, 2013년에는 전년대비 5.9% 증가한 54.8조원으로 전망되었다.

[표 III-9] 부가가치세수 중기전망

(단위: 조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증가율
부가가치세 (증가율)	45.0 (2.7)	46.3 (2.9)	48.6 (5.0)	51.7 (6.4)	54.8 (5.9)	5.0

9) 세수효과를 적용하기 전의 법인세수 증가율은 2009 ~ 2013년까지 각각 -0.3%, 1.7%, 11.4%, 12.3% 그리고 7.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세제개편으로 인해 2010년에 약 5조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9조원에 가까운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2011년의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은 전년도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세수효과를 반영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1.7조원에서 13.0조원으로 연평균 2.7%씩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9년에는 11.7조원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에는 12.9조원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에는 13.0조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 2012년에는 13.1조원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13.0조원으로 전년대비 0.4%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III-10] 교통에너지환경세 중기전망

(단위: 조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증가율
교통세 (증가율)	11.7 (-1.4)	12.9 (10.1)	13.0 (1.0)	13.1 (0.3)	13.0 (-0.4)	2.7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와 경유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석유류 중기 수요전망에 의하면 휘발유에 대한 수요는 2009년에 2.0% 증가한 후 2010년부터 증가율은 1%대 미만으로 낮지만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반면 2010년의 경기 회복으로 인해 수송부문에서 수요증가로 경유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가 정점에 이른 후 2011년 이후 점차 증가세가 축소되어 2013년에는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0)</sup>

관세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9.0조원에서 12.9조원으로 매년 9.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관세는 2010년에 10.1조원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고, 2013년에 12.9조원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관세수입은 수입금액과 실효관세율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2010년과 2013년에 관세 증가율이 높은 것은 같은 연도의 원화로 평가된 수입금액의 증가율

10)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세계개편 세수효과로 2009년에 4,000억원 정도가 감세되고, 2010년 이후부터는 매년 3,800억원 정도가 증세된다. 따라서 2010년의 높은 세수증가율은 전년도에 낮은 세수로 인한 기저효과로 판단된다.

이 9.8%와 13.3%로, 다른 해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표 III-11] 관세 중기전망

(단위: 조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증가율
관세 (증가율)	9.0 (2.7)	10.1 (12.5)	10.8 (6.7)	11.5 (5.9)	12.9 (12.9)	9.4

2009~2013년 사이의 국세수입과 경상 GDP의 연평균 증가율로 구한 탄성치는 0.98로 1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2009~2013년까지 평균적으로 경상 GDP가 1조원 증가할 때 국세수입은 약 9,800억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탄성치는 197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1980년의 0.99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경상 GDP가 1.9% 증가하는데 반해 세수는 1.9%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탄성치는 음(-)의 값을 가지는데 구지 해석하자면, 경상 GDP가 1조원 증가할 때, 세수는 9,9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0년에는 경상 GDP가 6.4% 증가할 때, 국세수입은 2.0% 증가하여 0.32의 탄성치를 보인다. 계속해서 2011년의 탄성치는 0.87, 2012년에는 1.47, 그리고 2013년에는 1.25로 점차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II-12] 경상 GDP 증가율과 탄성치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경상 GDP 증가율	1.9	6.4	6.1	6.5	6.9	6.5
국세수입 증가율	-1.9	2.0	5.3	9.5	8.6	6.3
탄성치	-0.99	0.32	0.87	1.47	1.25	0.98

주: 탄성치는 경상 GDP가 1% 증가할 때 국세수입은 몇% 증가하는지를 의미하며, '국세수입 증가율 / 경상 GDP 증가율 \* 100'의 산식으로 구할 수 있다.

## 나. 사회보장기여금 전망

2011~2013년 중 사회보장기여금 전망을 살펴본다. 전망방법은 앞서와 같이 각 연금 및 보험의 수입이 가입자와 임금 증가율 그리고 보험료율과 수납율에 따라 변화하게 되므로 이들 변수들에 대한 가정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가입자 수는 취업자 수 증가율에 연동되며 이에 각 연금 및 보험의 특성을 감안하여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는데 취업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경제전망에 따라 2011~2013년 기간 중 연평균 1.0% 내외 증가한다고 전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연금 및 보험의 가입자 수에 대한 가정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2011~2013년 기간 중 취업자 증가율과 비슷한 1.0% 증가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 1.2%와 1.0% 증가한다고 보았으며 그 외 사학연금은 2.0% 증가한다고 보았다. 임금은 2011년 4.6%, 2012년 5.1% 그리고 2013년 5.6% 등 2011~2013년 기간 중 연평균 5.1%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그 외 보험료율은 2010년의 수준이 지속된다고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납율은 2010년의 수준에서 완만하게 상승한다고 가정하였다.

사회보장기여금은 2010년 34조 6,220억원에서 2011년 36조 2,050억원, 2012년 38조 1,100억원 그리고 2013년 40조 3,48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율로 사회보장기여금은 2010년 2.4% 증가하지만 2011년 4.6%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2012년 5.3% 그리고 2013년 5.9%로 완만한 확대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을 살펴보면 실물경제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한 침체에서 본격적으로 벗어나면서 실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산한 경상 경제성장률이 2011년 6.1%에서 2012년 6.5% 그리고 2013년 6.9%로 확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연금 및 보험 가입자가 확대세를 보이고, 임금의 상승세가 확대되어 소득도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로 국민연금은 2011년 전년대비 4.2% 증가한 25조 1,630억원을 기록하고 2012년 5.0% 증가한 26조 4,210억원 그리고 2013년 5.6% 증가한 27조 9천억원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보험은 2011년 전년대비 5.6% 증가한 5조 2,330억원을 기록하고 2012년 5.9% 증가한 5조 5,420



억원 그리고 2013년 6.4% 증가한 5조 8,97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용보험은 2011년 전년대비 4.9% 증가한 4조 5,020억원을 기록하고 2012년 5.4% 증가한 4조 7,450억원 그리고 2013년 5.9% 증가한 5조 25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사학연금은 2011년 전년대비 6.6% 증가한 1조 3,060억원을 기록하고 2012년 7.3% 증가한 1조 4,020억원 그리고 2013년 8.8% 증가한 1조 5,25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13] 사회보장기여금 전망

(단위: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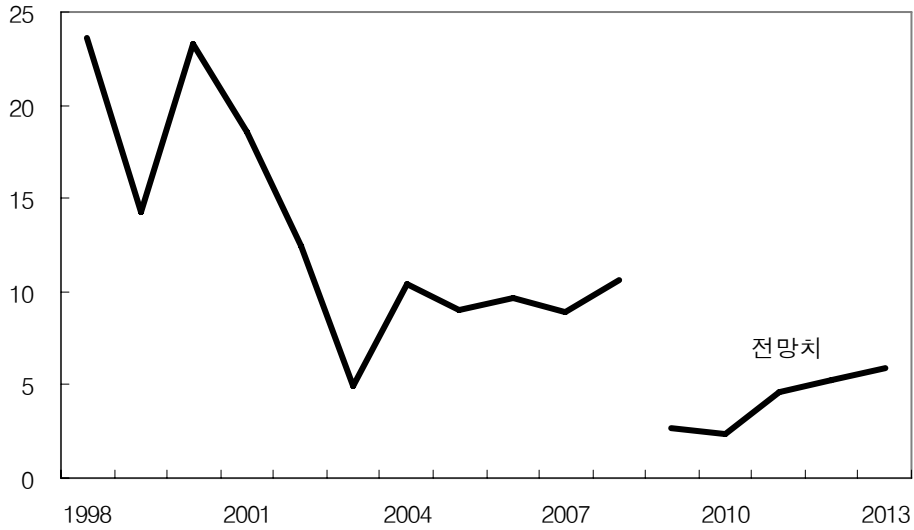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09~13	'10~13	'04~08
국민연금	3.0	2.0	4.2	5.0	5.6	4.0	4.2	8.0
산재보험	-1.0	3.3	5.6	5.9	6.4	4.0	5.3	14.5
고용보험	5.0	3.0	4.9	5.4	5.9	4.8	4.8	8.9
사학연금	5.5	6.0	6.6	7.3	8.8	6.8	7.2	6.8
전체	2.7	2.4	4.6	5.3	5.9	4.2	4.5	9.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전체적으로 지난 중기(2004~2008년)간에 연평균 9.7% 증가하였던 사회보장기여금은 이번 중기(2009~2013년) 기간 중 4.2% 증가에 그쳐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중기 전체 총수입 연평균 증가율인 4.8%보다 소폭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취업자와 임금이 이전 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가입자와 소득이 낮게 증가하는데 주로 기인한다. 한편 사회보장기여금이 총수입보다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에 따라 전체 세입 중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8년 11.9%에서 2013년 11.5%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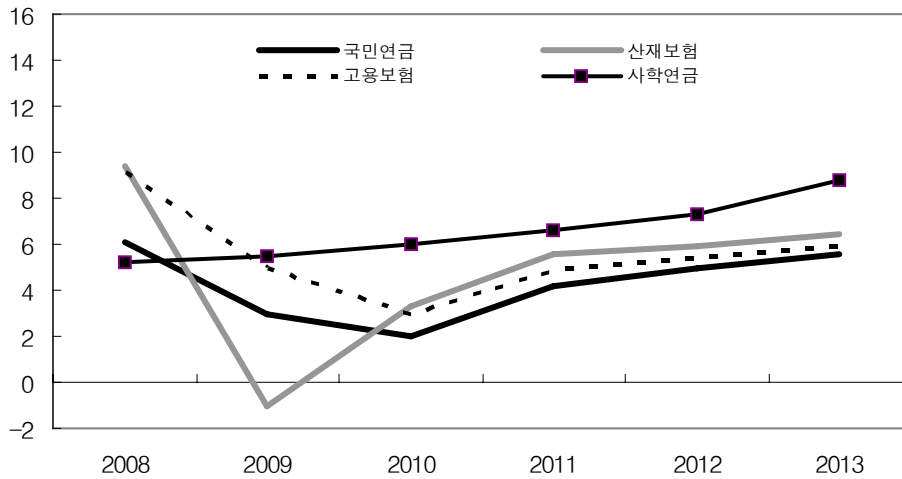
[그림 III-1] 사회보장기여금 전망

(단위: 증가율, %)



[그림 III-2] 사회보장기여금 부문별 전망

(단위: 증가율, %)



## 다.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전망

### (1) 전망의 전제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용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것과 기금 등의 여유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용자자산 이자수입은 용자자산에 용자이자율을 적용하여 전망하였다. 용자이자율은 회사채수익률에 최근 몇 년간 용자이자 대비 회사채수익률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용자자산은 후술하는 순용자 전망을 통해 전망하였다. 또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은 적립금 잔고에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하여 전망하였다. 적립금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국민연금 등 연금기금의 적립금인데, 이들은 각 공단의 전망을 기준으로 하되 금년 기금운용수입 등 차이가 나는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기타 세외수입 중 수수료·요금 등 비영업실적 판매, 벌금 및 몰수금, 토지·건물 임대료는 과거추세 또는 경상 GDP 등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전망하였다. 그리고 공무원 및 복지기금 기여금은 공무원 수, 공무원 봉급 등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공무원 봉급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에 연간 임금상승률 전망에 기초한 보수월액 상승률을 적용하여 전망하였다. 정부출자수입, 한은잉여금은 관련 정보 없이는 전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적절한 가정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자본수입은 향후 정부소유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매각계획 등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과거추세 등을 감안하여 회귀분석하여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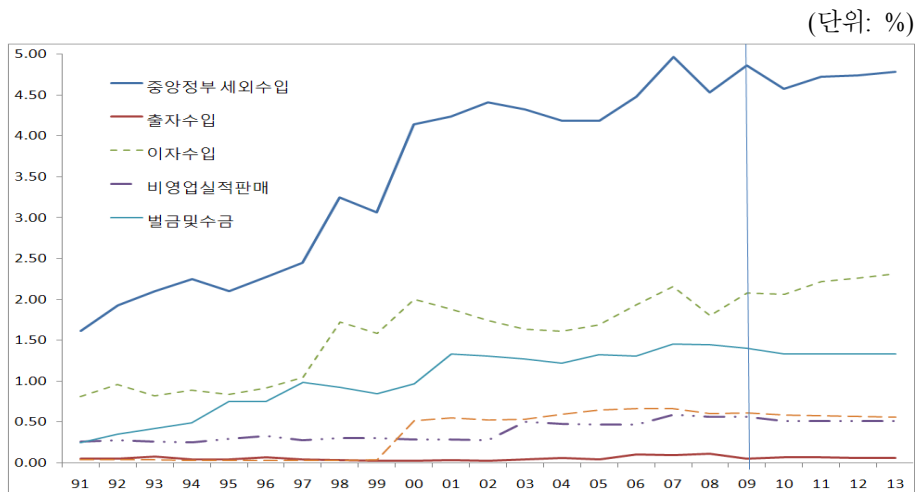
순용자를 전망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용자지출을 출자·금융조정용자·재정용자지출로 구분하였다. 또 용자회수는 민영화수입·재정용자회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들 각 항목에 대해 적절한 가정을 세워 용자지출과 용자회수를 전망한 후 용자자산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가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용자지출에 대한 가정이다. 재정용자지출은 1999년 최고조에 달한 이후 2000~2008년간 금리하락 등으로 감소 또는 정체상태를 보였으나 2009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편성으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금년의 재정용자지출의 증가는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향후에도 이러

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 재정용자지출은 2000 ~ 2009년의 평균치가 2010년 이후 지속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GDP 대비로는 재정용자지출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재정용자회수는 재정용자지출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회수됨을 가정하여 전망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순융자를 전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향후 용자자산의 잔고를 전망하였다.

## (2) 전망 결과

2009 ~ 2013년간 중앙정부 세외수입은 연평균 6.0%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중앙정부 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다. 항목별로는 재산수입이 2009 ~ 2013년간 7.5% 증가하여 경상성장률을 다소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자수입이 국민연금 등 적립금 증가로, 2009 ~ 2013년간 연평균 9.3% 증가하는데 주로 기인한다. 이자수입을 제외한 기타 세외수입은 경상성장률에 대한 탄성치의 하향안정세 등의 영향으로 경상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III-3] 중앙정부 세외수입 전망(GDP 대비비중)



주 : 2009년 이후는 전망

중앙정부 자본수입은 2009년 2.1조원에서 2010~2012년간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유물 매각대 수입의 증가로 3.5조원 내외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가 2013년 2.3조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201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전망되었다.

융자회수는 2009년 21.9조원에서 2010년에는 기업은행 주식매각 수입 증가 등으로 24.5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후 2013년까지 25조원 내외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특별회계 총수입은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III-14] 2009년 ~ 2013년 중앙정부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전망

(단위: 조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증가율 (04-08)	증가율 (09-13)
I. 중앙정부 세외수입 (GDP 대비)	50.7 (4.9)	50.8 (4.6)	55.6 (4.7)	59.5 (4.7)	64.1 (4.8)	(7.6)	(6.0)
1. 재산수입	23.9	23.8	27.1	29.3	32.0	(5.8)	(7.5)
1.1 정부출자수입	0.6	0.8	0.8	0.8	0.8	(24.5)	(8.8)
1.2 기타재산수입	23.4	23.0	26.3	28.5	31.2	(5.0)	(7.5)
관유물대여료	0.1	0.2	0.2	0.2	0.2	(17.6)	(2.1)
한은잉여금	1.5	0.0	0.0	0.0	0.0		
이자수입	21.7	22.9	26.1	28.3	31.0	(8.5)	(9.3)
2. 수수료·요금· 비산업적 판매	5.8	5.6	6.0	6.4	6.8	(10.0)	(4.1)
3. 벌금 및 수금	14.6	14.8	15.7	16.7	17.9	(10.0)	(5.2)
4. 공무원연금기여금	6.4	6.5	6.8	7.1	7.4	(5.9)	(3.8)
II. 중앙정부 자본수입 (GDP 대비)	2.1 (0.2)	3.5 (0.3)	3.7 (0.3)	3.9 (0.3)	2.3 (0.2)	(10.3)	(2.5)
III. 융자회수 (GDP 대비)	21.9 (2.1)	24.5 (2.2)	25.9 (2.2)	26.3 (2.1)	26.7 (2.0)	(-2.1)	(5.1)
IV. 기업특별회계총수입 (GDP 대비)	5.8 (0.6)	6.1 (0.5)	6.4 (0.5)	6.8 (0.5)	7.3 (0.5)	(1.9)	(6.0)

## IV

# NABO와 행정부 총수입 비교

1.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
2. NABO와 행정부 전망 비교

## IV. NABO와 행정부 총수입 비교

### 1.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

#### 가. 2009년 국세수입 전망

행정부는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통하여 2009년 국세수입을 총 164조 6,382억원으로 전망하여 2008년 실적 167조 3,060억원 대비 1.6% 감소하며 2009년 예산 164조 17억원 대비 0.4%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다.

행정부의 2009년 국세수입 전망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158조 1,114억원을 기록하여 2008년 실적 160조 7,200억원 대비 1.6% 감소하는 반면 2009년 예산 157조 3,388억원 대비로는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별회계 세입은 6조 5,268억원을 기록하여 2008년 실적 6조 5,860억원 대비 0.9% 감소하는 반면 2009년 예산 6조 6,629억원 대비로는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행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예산보다 실적을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목들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과년도수입, 주세 등에 불과하다. 반면 예산보다 실적이 나쁠 것으로 보이는 세목들은 소득세, 상속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등이다.

행정부의 2009년 세입전망을 세목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소득세는 33조 9,285억원을 기록하여 2008년 실적 36조 3,551억원 대비 6.7% 감소하며 2009년 예산 36조 2,553억원 대비로도 6.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문별로 근로소득세는 고용부진과 임금동결로 13조 3,222억원을 기록하여 예산대비 10.4%나 감소하고 종합소득세도 경기부진과 근로장려금 지급으로 5조 9,185억원으로 예산대비 19.0% 감소하며 또한 배당소득세도 기업경기 부진에

기인하여 1조 2,344억원으로 예산대비 26.0%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7조 2,776억원으로 예산대비 1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는 2009년 36조 1,303억원을 기록하여 2008년 실적 39조 1,545억원 대비 7.7% 감소하지만 2009년 예산 32조 2,270억원 대비로는 1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데 기인하고 있다. 이 중 신고분은 31조 3,964억원으로 2008년 실적대비 1.1% 감소하였지만 2009년 예산대비로는 20.8%나 증가하였으며, 반면 원천분은 4조 7,339억원으로 2008년 실적대비 36.2% 급감하고, 2009년 예산대비로는 24.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부가가치세는 2009년 46조 3,320억원을 기록하여 2008년 실적 43조 8,198억원 대비 5.7% 증가하고 2009년 예산 45조 6,369억원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부문별로 국내분은 13조 1,188억원으로 2008년 실적 5조 2,398억원 대비 150.4% 급증하고 2009년 예산 7조 6,275억원 대비 7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당초 예상보다 경기가 호전되고 소비가 증가되는데 기인하며, 수입분은 33조 2,132억원으로 2008년 실적 38조 5,800억원 대비 13.9% 감소하고 2009년 예산 38조 94억원 대비 1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 외 상속증여세가 2009년 2조 2,569억원으로 전년실적대비 18.7% 감소하고 2009년 예산대비 39.9%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중 상속세는 1조 1,938억원으로 예산대비 21.6% 감소하며 증여세는 1조 631억원으로 예산대비 52.4%나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개별소비세는 2009년 3조 6천억원으로 전년 실적 4조 4,994억원 대비 20.0% 감소하고 2009년 예산 4조 4,153억원 대비 18.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민간소비가 부진한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2009년 3조 4,409억원으로 2008년 실적 2조 7,875억원대비 23.4% 증가하고 2009년 예산 3조 2,594억원대비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유가증권지수가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데 기인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09년 11조 1,758억원을 기록하여 2008년 실적 11조 9,093억원대비 6.2% 감소하고 2009년 예산 12조 2,368억원 대비 8.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관세는 내수부진에 따른 수입 감소로 2009년 8조 7,421억원을 기록하여 2008년 실적 8조 7,757억원대비 0.4% 감소하고 2009년 예산 8조 9,649억원 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교육세는 2009년 4조 663억원을 기록하여 2008년 실적 4조 1,796억원대비 2.7% 감소하고 2009년 예산 4조 2,994억원 대비 5.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1조 1,836억원을 기록하여 2008년 실적 2조 1,299억원대비 44.4% 급감하고 2009년 예산 1조 4,882억원 대비 2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별회계에서 주세는 2009년 2조 7,626억원을 기록하여 2008년 실적 2조 8,311억원대비 2.4% 감소하지만 2009년 예산 2조 6,629억원 대비로는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농어촌특별세는 2009년 3조 7,642억원을 기록하여 2008년 실적 3조 7,549억원대비 0.2% 증가하지만 2009년 예산 4조 190억원 대비로는 6.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IV-1] 행정부 2009년 국세수입 세목별 전망

(단위: 억원, %)

	2008년 실적	2009년					
		예산	전망	2008년 실적대비		2009 예산대비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b>총국세</b>	<b>1,673,060</b>	<b>1,640,017</b>	<b>1,646,382</b>	<b>-26,678</b>	<b>-1.6</b>	<b>6,365</b>	<b>0.4</b>
<b>일반회계</b>	<b>1,607,200</b>	<b>1,573,388</b>	<b>1,581,114</b>	<b>-26,086</b>	<b>-1.6</b>	<b>7,726</b>	<b>0.5</b>
내국세	1,337,252	1,303,545	1,329,435	-7,817	-0.6	25,890	2.0
소득세	363,551	362,553	339,285	-24,266	-6.7	-23,268	-6.4
법인세	391,545	322,270	361,303	-30,242	-7.7	39,033	12.1
상속증여세	27,771	37,573	22,569	-5,202	-18.7	-15,004	-39.9
부가가치세	438,198	456,369	463,320	25,122	5.7	6,951	1.5
개별소비세	44,994	44,153	36,002	-8,992	-20.0	-8,151	-18.5
증권거래세	27,875	32,594	34,409	6,534	23.4	1,815	5.6
인지세	5,729	6,330	5,146	-583	-10.2	-1,184	-18.7
과년도 수입	37,589	41,703	67,401	29,812	79.3	25,698	61.6
교통에너지환경세	119,093	122,368	111,758	-7,335	-6.2	-10,610	-8.7
관세	87,757	89,649	87,421	-336	-0.4	-2,228	-2.5
교육세	41,796	42,944	40,663	-1,133	-2.7	-2,281	-5.3
종합부동산세	21,299	14,882	11,836	-9,463	-44.4	-3,046	-20.5
<b>특별회계</b>	<b>65,860</b>	<b>66,629</b>	<b>65,268</b>	<b>-592</b>	<b>-0.9</b>	<b>-1,361</b>	<b>-2.0</b>
주세	28,311	26,439	27,626	-685	-2.4	1,187	4.5
농어촌특별세	37,549	40,190	37,642	93	0.2	-2,548	-6.3

자료: 기획재정부

## 나. 2010년 국제수입 전망

행정부는 「2010년 국제 세입예산(안)」을 통하여 2010년 국제수입을 전망하면서 거시경제여건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2009년 -1.5%에서 2010년 4.0%로 확대되며, GDP 디플레이터는 2009년 2.6%에서 2010년 2.5%로 비슷하여 경상 경제성장률은 2009년 1.1%에서 2010년 6.6%로 큰 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수출은 2010년 3,935억달러로 11.0% 증가하여 2009년의 16.0%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며, 수입도 2010년 3,837억달러로 16.0% 증가하여 2009년의 급감(-24.0%)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외 명목임금은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기업실적 부진으로 2009년 임금수준이 동결되었으나 2010년에는 5.0% 증가하며, 원/달러환율은 외환시장 불안으로 2009년 1,280원까지 상승하겠지만 2010년에는 1,230원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회사채수익률(3년 만기 AA- 기준)은 2009년의 6.0% 수준을 2010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제하였다.

[표 IV-2] 행정부 2010년 국제수입 전망의 전제

(단위: 증가율, %)

	2008년	2009년		2010년
		추경	전망	
경상경제성장률 (실질경제성장률)	5.0 (2.2)	0.5 (-2.0)	1.1 (-1.5)	6.6 (4.0)
(GDP 디플레이터)	(2.7)	(2.6)	(2.6)	(2.5)
민간소비	0.5	-3.0	-1.8	3.0
수출(억달러)	4,220	3,545	3,545	3,935
(증가율)	(13.6)	(-16.0)	(-16.0)	(11.0)
수입(억달러)	4,353	3,439	3,308	3,837
(증가율)	(22.0)	(-21.0)	(-24.0)	(16.0)
명목임금	3.1	2.0	0.0	5.0
원/달러환율	1,103	1,300	1,280	1,230
회사채수익률 (3년만기 AA-, %)	7.0	6.0	6.0	6.0

자료: 기획예산처, 「2010년 국제 세입예산(안)」, 2009. 10.

행정부는 2010년 국세수입을 총 168조 6,203억원으로 추계하여 2009년 예산(164조 17억원) 대비 2.8% 그리고 2009년 전망(164조 6,382억원)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2009년 중 음의 경제성장과 2010년 중 5.5조원의 감세효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데 기인하고 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161조 6,553억원으로 2009년 예산(157조 3,388억원)대비 2.7%, 2009년 전망(158조 1,114억원)대비 2.2% 증가하며, 특별회계 세입은 6조 9,650억원으로 2009년 예산(6조 6,629억원)대비 4.5%, 2009년 전망(6조 5,268억원)대비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행정부의 2010년 국세수입 전망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2009년 국세수입 행정부 전망치보다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리라고 예상되는 세목들은 소득세,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육세 등이다. 반면 2009년 국세수입 전망치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목들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행정부의 2010년 국세수입 전망을 세목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소득세는 36조 9,879억원을 기록하여 2009년 전망치인 33조 9,285억원 대비 9.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부문별로 근로소득세는 고용이 확대되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2010년 14조 2,041억원으로 2009년 전망대비 6.1% 증가하며, 양도소득세는 8조 9,162억원으로 2009년 전망치대비 22.5%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부동산가격 상승이외 거래량이 활성화되는데 기인하고 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2009년의 경기부진을 반영하여 5조 9,010억원으로 2009년 전망치대비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법인세는 2010년 35조 4,015억원을 기록하여 2009년 전망치인 36조 1,303억원 대비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2009년의 경기침체와 2008년의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효과(2.2조원)<sup>11)</sup>에 주로 기인한다. 신고분은 25조 9,382억원으로 2009년 전망치대비 17.4% 큰 폭 감소하겠지만, 원천분은 9조 4,633억원으로 2009년 전망치대비 99.9%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부가가치세는 2010년 46조 2,354억원을 기록하여 2009년 전망치인 46조

11) 기획재정부는 2008년의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효과가 7.4조원, 2009년 세제개편에 따른 증세효과가 5.2조원으로 추정하였음.

3,320억원 대비 0.2%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실제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라 차감되는 부가가치세의 5%인 2조 4,300억원을 포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48조 6,688억원으로 2009년의 전망치대비 5.0%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내수 회복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수입액도 확대되는데 기인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46조 3,320억원 중에서 국내분은 9조 429억원으로 2009년 전망치 13조 1,188억원 대비 31.1% 급감하지만 수입분은 37조 1,925억원으로 2009년 전망치인 33조 2,132억원보다 1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수입분 부가가치세의 증가는 원/달러환율이 소폭 하락하지만 명목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는데 기인한다.

그 외 상속·증여세가 2010년 2조 7,015억원으로 2009년의 전망치인 2조 2,569억원 대비 19.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중 상속세는 1조 3,201억원 그리고 증여세는 1조 3,814억원으로 각각 2009년의 전망치보다 10.6%와 29.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개별소비세는 2010년 4조 8,560억원으로 2009년 전망치인 3조 6,002억원 대비 34.9%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민간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자동차 및 유류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3조 6,917억원으로 2009년 전망치인 3조 4,409억원 대비 7.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유가증권지수와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제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0년 11조 6,950억원으로 2009년 전망치인 11조 1,758억원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휘발유분이 5조 2,139억원 그리고 경유분 6조 4,355억원으로 나누어진다. 관세는 2010년 9조 7,701억원으로 2009년의 전망치인 8조 7,421억원 대비 1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주로 내수회복으로 명목수입이 큰 폭(16%) 증가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또한 교육세는 4조 5,426억원을 기록하여 2009년의 전망치인 4조 663억원 대비 1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세는 교통세와 주세 그리고 개별소비세 등에 연동되며 이들 세목들의 증가세에 힘입고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1조 461억원으로 2009년의 전망치인 1조 1,836억원대비 11.6% 감소하여 2009년의 -44.4%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별회계에서 주세는 2조 8,621억원으로 2009년의 전망치인 2조 7,626억원 대비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농어촌특별세는 4조 1,029억원으로 2009년 전망치 3조 7,642억원 대비 9.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구성요소별로 종합부동산세분은 축소되겠지만 증권거래세분이 증가하는데 기인한다.

[표 IV-3] 행정부 2010년 국세수입 세목별 전망

(단위: 억원, %)

	2009년도		2010년도				
	예산	전망	예산	2009년 예산대비		2009년 전망대비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b>총국세</b>	<b>1,640,017</b>	<b>1,646,382</b>	<b>1,686,203</b>	<b>46,186</b>	<b>2.8</b>	<b>39,822</b>	<b>2.4</b>
<b>일반회계</b>	<b>1,573,388</b>	<b>1,581,114</b>	<b>1,616,553</b>	<b>43,165</b>	<b>2.7</b>	<b>35,440</b>	<b>2.2</b>
내국세	1,303,545	1,329,435	1,346,015	42,470	3.3	16,580	1.2
소득세	362,553	339,285	369,879	7,326	2.0	30,594	9.0
법인세	322,270	361,303	354,015	31,745	9.9	-7,288	-2.0
상속증여세	37,573	22,569	27,015	-10,558	-28.1	4,446	19.7
부가가치세	456,369	463,320	462,354	5,985	1.3	-966	-0.2
개별소비세	44,153	46,002	48,560	4,407	10.0	12,558	34.9
증권거래세	32,594	34,409	36,917	4,323	13.3	2,508	7.3
인지세	6,330	5,146	6,138	-192	-3.0	992	19.3
과년도 수입	41,703	67,401	41,137	-566	-1.4	-26,264	-39.0
교통에너지환경세	111,368	111,758	116,950	-5,418	-4.4	5,192	4.6
관세	89,649	87,421	97,701	8,052	9.0	10,280	11.8
교육세	42,944	40,663	45,426	2,482	5.8	4,763	11.7
종합부동산세	14,882	11,836	10,461	-4,421	-29.7	-1,375	-11.6
<b>특별회계</b>	<b>66,629</b>	<b>65,268</b>	<b>69,650</b>	<b>3,021</b>	<b>4.5</b>	<b>4,382</b>	<b>6.7</b>
주세	26,439	27,626	28,621	2,182	8.3	995	3.6
농어촌특별세	40,190	37,642	41,029	839	2.1	3,387	9.0

자료: 기획재정부

#### 다. 2009 ~ 2013년 총수입 전망

행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기 총수입을 전망한다. 총수입은 중앙정부 통합재정 세입, 기업특별회계 경상수입, 융자회수 등 행정부가 재정을 운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행정부는 실질 경제성장률이 2008년의 2.2%에서 2009년 -1.5%의 감소로 반전된 후 2010년 4.0%의 플러스로 전환되고 2011~2013년 기간 중에는 5.0%로 가정하고 있다. 이에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을 더한 경상 경제성장률은 2008년 5.2%에서 2009년 1.1%로 둔화되지만 2010년 6.6%로 확대된 이후 2011~2013년 중에는 연평균 7.6%로 가정되었다.

[표 IV-4] 행정부 중기(2009 ~ 2013년) GDP 증가율 전망

(단위: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실질 GDP	-1.5	4.0	5.0	5.0	5.0	3.5
경상 GDP	1.1	6.6	7.6	7.6	7.6	6.1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09 ~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 9.

행정부는 「2009 ~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수입이 연평균 5.6% 증가하여 경상 GDP 증가율을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2009년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09년 국세수입 베이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총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6.6%로 다소 높아진다. 연도별로 총수입은 2009년 291조원에서 2010년에는 287조 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후 총수입은 2011년 309조 5천억원으로 7.5% 증가하고 2012년에는 337조 6천억원으로 9.1% 증가하지만 2013년에는 361.7조원으로 증가세가 7.1%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총수입중에서 국세수입은 2009 ~ 2013년 중 연평균 5.8% 증가하여 총수입의 증가율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과세기반 확대 추진과 무관

하지 않다고 보았다. 연도별로 국세는 2009년 175.4조원에서 2010년 168.6조원으로 3.9% 감소하지만 2011년 182.1조원으로 전년대비 8.0% 증가하며 2012년과 2013년 각각 199.8조원과 219.5조원으로 각각 9.7%와 9.9% 증가하여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세외수입은 공기업민영화와 국가 자산 활용가치 제고 등에 힘입어 2009년 21.5조원에서 2013년 28.5조원으로 연평균 7.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기금수입은 2009년의 94.1조원에서 2013년 113.7조원으로 연평균 4.9% 증가하여 전체 총수입 증가세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IV-5] 행정부 중기(2009 ~ 2013년) 총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당초	추경					
총수입	291.0 (-)	279.8 (-)	287.8 (-1.1)	309.5 (7.5)	337.6 (9.1)	361.7 (7.1)	- (5.6)
예산수입	196.9	185.7	191.9	206.3	228.7	248.	(5.9)
국세수입	175.4	164.0	168.6	182.1	199.8	219.5	(5.8)
세외수입	21.5	21.7	23.3	24.2	28.8	28.5	(7.3)
기금수입	94.1	94.1	95.9	103.2	108.9	113.7	(4.9)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 9.

행정부의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부담율은 2009년의 21.6%에서 감세추진에 따라 2010~2011년 중 20.1%로 하락하지만 이후 2012년 20.4% 그리고 2013년 20.8%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2009년의 27.6%에서 2010년 26.4%로 낮아진 후 2011년 26.8%, 2012년 27.4% 그리고 2013년 28.1%로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IV-6] 행정부 중기 부담률 전망

(단위: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당초	추경				
조세부담률	21.6	20.5	20.1	20.1	20.4	20.8
국민부담률	27.6	26.5	26.4	26.8	27.4	28.1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 9.

## 2. NABO와 행정부 전망 비교

### 가. 2009 ~ 2010 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NABO는 2009년도 국세수입 규모를 164조 1,489억원으로, 행정부는 164조 6,382억원으로 각각 전망하였다. NABO와 행정부의 국세수입 전망 차이는 4,893억원으로 행정부가 NABO보다 0.3% 높게 전망하였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행정부가 158조 1,114억원을 전망하여 NABO의 157조 3,746억원보다 7,368억원(0.5%) 높게 전망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행정부가 6조 5,268억원을 전망하여 NABO의 6조 7,743억원보다 2,475억원(3.7%) 적게 전망하였다.

세목별로 행정부가 NABO보다 높게 전망한 세목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4개 세목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행정부가 33조 9,641억원을 전망하여 NABO 전망 33조 9,285억원과 356억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개의 주요 세목의 세수에서 행정부가 NABO보다 높거나 거의 동일하게 전망한 것은 2009년도 하반기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회복되거나 최소한 경기저점을 벗어날 것으로 행정부가 예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7] NABO와 행정부의 2009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단위: 십억원, %)

	NABO (A)	행정부 (B)	차이 (B-A)	차이율
<b>총국세</b>	<b>164,148.9</b>	<b>164,638.2</b>	<b>489.3</b>	<b>0.3</b>
<b>일반회계</b>	<b>157,374.6</b>	<b>158,111.4</b>	<b>736.8</b>	<b>0.5</b>
내국세	131,214.7	132,943.5	1,728.8	1.3
소득세	33,964.1	33,928.5	-35.6	-0.1
법인세	35,201.0	36,130.3	929.4	2.6
상속세	3,039.8	2,256.9	-782.9	-25.8
부가가치세	45,005.2	46,332.0	1,326.8	2.9
개별소비세	3,652.5	3,600.2	-52.3	-1.4
증권거래세	2,849.5	3,440.9	591.4	20.8
인지세	605.8	514.6	-91.2	-15.1
과년도 수입	6,896.9	6,740.1	-156.8	-2.3
교통에너지환경세	11,740.0	11,175.8	-564.2	-4.8
관세	9,015.7	8,742.1	-273.6	-3.0
교육세	4,220.6	4,066.3	-154.3	-3.7
종합부동산세	1,183.6	1,183.6	0.0	0.0
<b>특별회계</b>	<b>6,774.3</b>	<b>6,526.8</b>	<b>-247.5</b>	<b>-3.7</b>
주세	3,363.3	2,762.6	-600.7	-17.9
농어촌특별세	3,411.0	3,764.2	353.2	10.4

[표 IV-8] NABO와 행정부의 2010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단위: 십억원, %)

	NABO (A)	행정부 (B)	차이 (B-A)	차이율
<b>총국세</b>	<b>167,481.3</b>	<b>168,620.3</b>	<b>1,139.0</b>	<b>0.7</b>
<b>일반회계</b>	<b>160,945.8</b>	<b>161,655.3</b>	<b>709.5</b>	<b>0.4</b>
내국세	132,550.5	134,601.5	2,051.0	1.5
소득세	36,127.3	36,987.9	860.6	2.4
법인세	34,620.2	35,401.5	781.3	2.3
상속증여세	3,318.2	2,701.5	-616.7	-18.6
부가가치세	46,303.4	46,235.4	-68.0	-0.1
개별소비세	3,929.1	4,856.0	926.9	23.6
증권거래세	3,283.0	3,691.7	408.7	12.4
인지세	640.5	613.8	-26.7	-4.2
과년도 수입	4,328.8	4,113.7	-215.1	-5.0
교통에너지환경세	12,923.5	11,695.0	-1,228.5	-9.5
관세	10,140.3	9,770.1	-370.2	-3.7
교육세	4,285.4	4,542.6	257.2	6.0
종합부동산세	1,046.1	1,046.1	0.0	0.0
<b>특별회계</b>	<b>6,535.5</b>	<b>6,965.0</b>	<b>429.5</b>	<b>6.6</b>
주세	3,518.8	2,862.1	-656.7	-18.7
농어촌특별세	3,016.7	4,102.9	1,086.2	36.0

2010년도 국세수입은 행정부가 168조 6,203억원으로 NABO의 167조 4,813억원보다 1조 1,390억원 많게 전망하고 있다. 회계별로는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행정부가 161조 6,553억원으로 NABO의 일반회계 세입전망 160조 9,458억원보다 7,095억원 높게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 세입은 행정부가 6조 9,650억원을 전망하여 NABO의 전망 6조 5,355억원보다 4,295억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6개 세목에서 행정부가 NABO보다 높은 세수를 전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수는 행정부와 NABO의 차이가 680억원으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 나. NABO와 행정부 중기 총수입 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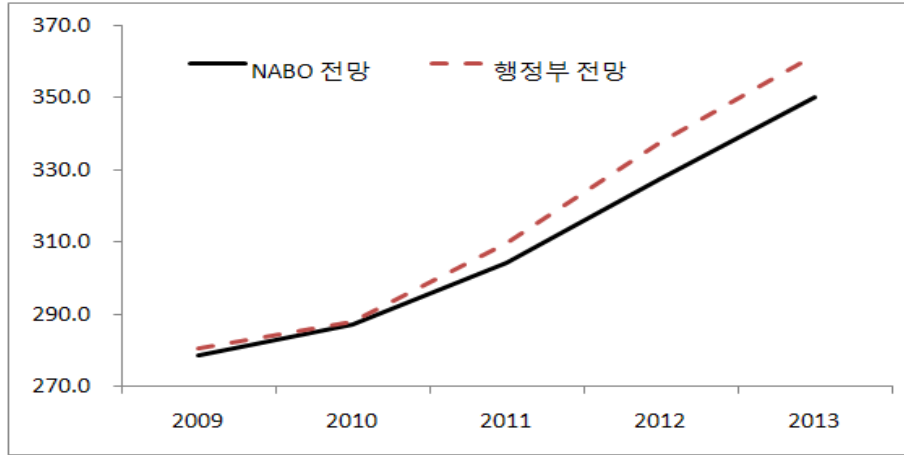
NABO와 행정부 사이의 국세수입 중기 전망 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9~2013년까지 NABO가 전망한 국세수입은 연평균 6.3%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정부는 같은 기간동안 국세수입을 연평균 7.5%의 증가율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국세수입 전망 연평균 증가율에서 NABO와 1.2%p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면에서 비교해 보면, 2009년에 NABO가 행정부보다 5,000억원 적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망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는데, 2010년에 1.1조원, 2011년에 5.8조원, 2012년에 6.8조원, 그리고 2013년에 9.9조원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렇게 전망기간이 멀어질수록 차이가 확대되는 원인은 무엇보다 경상 GDP의 증가율 전망의 차이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외수입은 NABO가 2009년에 114.3조원을 전망하였고 2013년에 140.7조원을 전망하여,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행정부는 115.8조원에서 142.2조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규모의 차이는 2009년에 NABO가 행정부보다 1.5조원 적게 전망하였고, 2010년과 2011년에는 3,000억원과 4,000억원 많게 전망하였다. 그러나 다시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3.2조원과 1.5조원 적게 전망하는 등 NABO와 행정부 전망 사이의 오차는 서로 교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 NABO와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 비교

(단위: 조원)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

[표 IV-9] NABO와 행정부의 중기 총수입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NABO (A)	총수입	278.4	286.9	304.2	327.7	350.3	5.9
	국세수입	164.1	167.5	176.3	193.0	209.6	6.3
	국세외수입	114.3	119.5	127.8	134.6	140.7	5.3
행정부 (B)	총수입	280.4	287.8	309.5	337.6	361.7	6.6
	국세수입	164.6	168.6	182.1	199.8	219.5	7.5
	국세외수입	115.8	119.2	127.4	137.8	142.2	5.3
차이 (A-B)	총수입	-2.0	-0.9	-5.3	-9.9	-11.4	-29.5
	국세수입	-0.5	-1.1	-5.8	-6.8	-9.9	-24.1
	국세외수입	-1.5	0.3	0.4	-3.2	-1.5	-5.5
차이율	총수입	-0.7	-0.3	-1.7	-2.9	-3.1	
	국세수입	-0.3	-0.7	-3.2	-3.4	-4.5	
	국세외수입	-1.3	0.2	0.3	-2.3	-1.0	

주: 1. 2009년도 행정부 총수입은 행정부 국세수입 전망 164.6조원을 사용하여 재계산하였음.

2. 음영부분은 누계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의 합으로 구성되는 총수입의 전망 결과를 비교해 보면, 2009~2013년까지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NABO의 경우 5.9%로, 행정부의 전망 6.6%보다 0.7%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면에서는 NABO가 2009년에 278.4조원을 전망하여 행정부의 280.4조원보다 2조원 적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2010년에는 NABO가 286.9조원을 전망하고 행정부가 287.8조원을 전망하여 그 차이가 축소되었다. 그러나 2011년 NABO가 304.2조원을 전망하고 행정부가 309.5조원을 전망하여 규모의 차이가 5.3조원으로 다시 확대되기 시작한다. 2012년에는 NABO와 행정부가 각각 327.7조원과 337.6조원을 전망하였고, 2013년에는 350.3조원과 361.7조원을 전망하였다. 규모차이는 각각 9.9조원과 11.4조원으로 커진다.

총수입 전망의 차이율은 NABO가 행정부보다 0.3%에서 3.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0.7% NABO가 행정부보다 낮게 전망하였고, 2010년에 0.3% 낮게 전망하여 차이율이 점차 축소되는 듯 했으나 2011년에 1.7% 적게 전망하여 다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NABO가 행정부보다 2.9%, 2013년에는 3.1% 낮게 전망하였다.

#### 다. NABO와 행정부 국세부담률 전망 비교

NABO와 행정부가 전망한 국세수입이 국민소득(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부담률을 비교해 보면, NABO와 행정부 사이의 국세부담률 차이는 0.2~0.4%p로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NABO의 국세부담률 전망은 2009년의 15.7%에서 2011년의 15.0%로 점차 감소하다 2012년의 15.4%, 2013년의 15.6%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의 국세부담률 전망은 2009년의 15.9%에서 2011년까지 15.3%로 감소하였다가 2012년 15.6%, 2013년에 16.0%로 NABO의 그것과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2011년까지 국세부담률이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기 타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10년의 경제는 예년의 성장 수준을 회복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전망한 세입에 2009년도 세계개편(안) 중 2010

년의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증세효과 7.7조원을 감안해도 국세부담률이 감소하는 원인은 2008년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가 중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10] NABO와 행정부의 국세부담률 비교

(단위: %, %p)

	2009	2010	2011	2012	2013
NABO (A)	15.7	15.1	15.0	15.4	15.6
행정부 (B)	15.9	15.3	15.3	15.6	16.0
차 이 (B-A)	0.2	0.2	0.3	0.2	0.4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

#### 라. NABO와 행정부의 전망 차이 분석

예측이라는 특성 상 세수추계의 오차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오차는 경제 및 재정정책에 혼선을 초래하면서 균형재정의 원칙을 파기시키고 재정 적자를 가중시키는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세수를 과도하게 추계할 경우 행정부의 재정운용이 방만해져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며, 세수가 과소하게 추계될 경우 실제 필요한 부문에 적절하게 재원을 배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높아지던 조세부담률이 다시 금융위기를 맞아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수추계의 비정확성으로 인해 세수오차가 커진다면 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세수추계의 오차를 최대한 줄이면서 이러한 오차의 원인을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NABO와 행정부의 2009~2010년 국세수입 전망과 2009~2013년 총수입 전망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NABO의 국세수입 전망은 행정부의 전망보다 단기에는 1%이내에, 중기에는 4.5% 이내로 낮게 전망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의 전망 역시 NABO의 전망이 단기에는 1%이내에, 중기에는 3% 이내로

낮게 전망되었다. 이렇듯 2009~2013년 기간 중 NABO와 행정부의 국세수입 및 총수입 전망 결과를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행정부가 NABO보다 국세수입과 총수입을 높게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세수추계의 전체가 되는 거시경제 여건에 대한 전망 차이와 세수추계 방법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여건에 대한 전망 차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009~2013년 사이에 행정부는 경상 GDP의 연평균 증가율을 7.3%로, NABO는 6.5%로 전망하여, 행정부가 NABO보다 0.8%p 높은 낙관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 실질 GDP의 연평균 증가율은 행정부가 4.7%, NABO가 4.1%로 전망하여 0.6%p의 성장률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NABO의 실질 GDP 증가율 전망 4.1%는 NABO의 잠재성장률 전망 3.7%보다 0.4%p 높은 수준이다.

국세수입은 경상 GDP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고, 경상 GDP의 증가율을 높게 전망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세수전망이 NABO의 세수전망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국세수입을 포함하는 총수입은 예상보다 적은 수준에 그쳐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sup>12)</sup>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행정부의 경제전망은 보다 보수적일 필요성이 있으며, 보수적인 전망에 입각해 국세수입 및 국세외수입 전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12) 낙관적인 경상 GDP 증가율 전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2004~2008년 NABO 국가재정 운용계획 분석」과 「2005~2009년 NABO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등에서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표 IV-11] NABO와 행정부의 실질 및 경상 GDP 증가율

(단위: %, %포인트)

	실질 GDP			경상 GDP		
	NABO (A)	행정부 (B)	차이 (B-A)	NABO (A)	행정부 (B)	차이 (B-A)
2009	-1.0	-1.5	-0.5	1.9	1.1	-0.8
2010	3.8	4.0	0.2	6.4	6.6	0.2
2011	3.9	5.0	1.1	6.1	7.6	1.5
2012	4.2	5.0	0.8	6.5	7.6	1.2
2013	4.5	5.0	0.5	6.9	7.6	0.7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수입, 세외수입 및 사회보장기여금 등 총수입 증기 전망을 할 때, 경상 GDP, 민간소비, 수출 수입, 환율, 소비자물가지수 등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를 이용한 추계모형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반면 2009년 10월 현재 기획재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부의 국세수입 추계방식은 국회에 제출하는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알려지고 있는 반면 총수입 추계 방법은 자세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국세수입 추계방식은 거시경제지표 등 해당세목 추정에 적합한 설명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식을 이용하는 방법, 전년도 실적에 탄성치나 증가율 등 적용하여 추계하는 방법, 그리고 과세대상의 수량이나 가격의 전망치에 세율 적용하여 추계하는 방법 등 3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여 추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3)</sup>

그런데 회귀분석식을 이용하여 추계하는 세목들 이외의 세목에서는 단년

13) 행정부의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방안』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23개의 세목으로 세 분류하고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신고분,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6개의 세목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통해 세수전망을 하고 있다. 세분류된 23개의 세목은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을근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신고분과 근로소득세, 이자 및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로, 법인세를 신고분과 원천분으로, 부가가치세를 국내분과 수입분으로 구분한 것으로 포함한다.

도 국세수입 추계는 가능하여도 중기에 대한 전망은 오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기 세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엄밀한 세수추계 모형과 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내용의 공개가 필요하다. 따라서 세목별로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변수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모형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V

---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보고서는 2009~2013년 총수입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수입을 크게 국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그리고 세외수입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세분화하여 추계하였다.

총수입 전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1.9% 감소한 164.2조원으로 추계되어 행정부의 추경예산안인 164.0조원과 비슷하게 전망되었다. 또한 사회보장기여금수입은 전년대비 2.7% 증가에 그친 33.8조원으로 전망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0.7조원으로 예상되어 정부 예산대비 2조원 낮게 추계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전년대비 0.4% 미증한 278.4조원으로 나타나 행정부의 추경예산안인 279.8조원보다 1.5조원(0.5%) 낮게 전망되었다. 2010년에는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2.0% 증가한 167.5조원으로 추계되어 행정부의 168.6조원보다 1조 천억원(0.7%) 낮게 전망되었고, 사회보장기여금수입은 전년대비 2.4% 증가에 머문 34.6조원으로 전망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09년과 비슷한 50.8조원으로 예상되어 정부 예산상 규모와 비슷하게 추계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총수입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286.9조원으로 추계되어 행정부의 287.8조원대비 9천억원(0.3%) 낮게 전망되었다.

중기전망에 대하여 국세수입은 2013년 209.6조원으로 추계되어 2009~2013년 기간 중 연평균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행정부의 동 기간 중 연평균 7.5% 증가에 비하여 1.2%p 낮은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기여금수입은 2013년 40.3조원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4.5% 증가할 것이며, 세외수입은 2013년 64.1조원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총수입은 2013년 350.3조원으로 추계되어 2009~2013년 기간 중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행정부의 동기간 중 연평균 6.6% 증가보다 0.7%p 낮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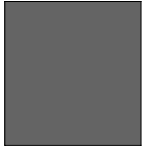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 및 총수입 전망결과를 토대로 2009~2013년 기간 중 국세부담률을 살펴보면 2009년 15.7%에서 2011년 15.0%로 점차 낮아지지

만, 이후 2012년 15.4%와 2013년 15.6%로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행정부는 국세부담률을 2009년의 15.9%에서 2011년 15.3%로 감소하고 이후 2012년 15.6%와 2013년 15.6%로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NABO와 행정부의 국세부담률은 0.2~0.4%p 차이가 있다.

중앙정부 국세 및 총수입 증기전망에 대하여 본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바 증기 전체적으로 행정부가 국회예산정책처보다 총수입과 국세를 각각 29.5조원과 24.1조원 크게 추계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추계모형의 상이함도 한 요인이지만 주로 경상 경제성장률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상 GDP를 2009~2013년 기간 중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행정부는 7.3% 증가로 예상하여 행정부가 NABO보다 0.8%p 높게 낙관하고 있다. 즉, 경제 전반의 물가를 반영하는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동기간 중 0.2%p 차이에 불과하지만 실질 GDP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동기간 중 연평균 4.1% 증가로 예상하는 반면 행정부는 4.7%로 보고 있어서 0.6%p 차이가 나고 있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노동투입과 자본스톡의 저하에 따라 최근 4% 내외로 하락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는바 행정부의 증기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에 근거하여 세수추계를 하는 경우 과대추정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예상보다 적은 수준에 머무르게 되어 계획된 지출과의 차이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당초 예상보다 재정수지가 나빠지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세입과 지출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행정부의 입장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감안한다면 행정부는 경제전망을 보다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곽태원, 「조세론」, 법문사, 2000.
- 국회예산정책처, 「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2008~2012년」, 2008.
- 국회예산정책처, 「NABO 중기경제전망 2009~2013년」, 2009.
- 국회예산정책처, 「NABO 2009년 세제개편안 분석」, 2009.
- 국회예산정책처, 「NABO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2009.
- 기획재정부, 「2008년도 세제개편(안)」, 설명자료, 2008.
- 기획재정부, 「2009년도 세제개편(안)」, 설명자료, 2009.
- 기획재정부, 「2010년 세입예산(안)」, 설명자료, 2009.
- 대한민국정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
- 이영, “외환위기와 한국 조세의 변화”, 「경제학연구」, 제55권, 제4호, 한국경제학회, 2007.
- 이영환·신영임,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2009.



가  
나

## A-1. NABO 국세수입 전망방법

NABO의 중기 국세수입 전망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세수입을 전망하기 위해 14개의 국세 세목 중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종합부동산세의 4가지 세목을 제외한 10개의 세목에 대하여 세수를 전망하였다. 연도별 과거의 세입 및 거시경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9개의 세수추계 모형을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세수를 전망하였다. 세수추계 모형의 설정대상인 10개의 세목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그리고 주세가 있다. 그러나 2008년도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계는 총국세 대비 비중이 2% 미만이고 경상 GDP 대비 비중이 0.3% 미만으로 그 규모가 미미하며 성격이 유사하므로 하나의 세수 추계 모형을 설정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계에 대하여 전망하였다. 세수 규모가 가장 작은 세목은 인지세이지만 그 특성이 상속세 및 증여세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여 개별 세수추계 모형을 설정하였다.

소득세는 신고분과 원천분으로 구분되고, 신고분은 전년도 소득에 대해 부과되고 원천분은 당해연도의 소득에 부과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전년도 경상 GDP와 당해년도 경상 GDP에 주로 결정된다. 소득세수는 1997년 이전까지의 증가세와 달리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6년 이후 부동산 실거래가 확대에 의해 양도소득세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소득세율 자진신고 납부 비율이 늘어나 다시 한번 소득세수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997년 이후와 2006년 이후 소득세 세수의 증가 추세가 변화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 당해연도 경상 GDP의 기율기 더미변수를 소득세 세수 추계 모형의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법인세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분과 원천분으로 구분되고, 신고분과 원천분 법인세수는 전년도와 당해연도의 경상 GDP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설비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환율에 의해서는 기업의 수익이 결정된다고 가정을 하였다. 법인세는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 세수의 증가 추세



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2000년도 경상 GDP의 기울기를 변화시키는 더미변수를 법인세 세수 추계 모형의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상속증여세는 자산의 가치에 의해 세수가 결정되므로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시경제 변수로 실질 GDP와 GDP 디플레이터를 선택하였다. 상속증여세 세수는 1990년과 1998년에 세수 증가 추세에 변화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당해연도의 실질 GDP의 기울기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부가가치세는 당해연도에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거래되는 모든 용역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수는 당해연도의 경상 GDP와 수입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설비투자는 환급을 해준다. 따라서 경상 GDP, 원화로 평가된 총수출과 총수입, 설비투자를 부가가치세세수 추계 모형의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탄가스에서부터 경마장 입장행위까지 매우 다양하며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등에 기인하여 과세대상도 자주 변화되어 왔다. 이처럼 안정적이지 않은 개별소비세의 세수구조 때문에 과거의 개별소비세 세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미래의 세수를 전망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설명하는 변수로 경상민간소비, 소비자물가지수, 그리고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를 결정하는 금리를 선택하였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식거래대금이므로 한국거래소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된 주식거래대금의 연간 합계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증권거래세 규모를 전망하기 위해 먼저 경상 GDP로 주식거래대금을 전망하고, 전망된 주식거래대금을 증권거래세 추정모형에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추정하였다. 1991년에 증권거래세의 증가 추세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해연도 주식거래대금의 기울기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인지세는 자산의 거래에 의해 세수가 결정되는데 자산의 거래를 결정하는 거시변수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높으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낮으면 그 반대의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고 자산의 가치를 결

정하는 거시경제 변수로 경상 GDP를 선택하였다.

주세 역시 개별소비세와 마찬가지로 경상민간소비에 의해 주로 결정되고, 주류소비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맥주세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주세도 다른 대부분의 세목들과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이후 그 증가 추세가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 1997년에 경상민간소비의 기울기 더미 변수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관세는 원화로 평가된 수입금액 규모와 실효관세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효관세율은 거시전망에 포함되지 않는 변수이므로 미래의 관세 세수규모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실효관세율을 예측해야 하지만 모형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망에는 2009년 상반기 실효세율 2.18%를 적용하였다. 9개 세수추계 모형은 (A1) ~ (A9)와 같다.

$$(A1) \quad I_t = \alpha^I + \beta_1^I GDPV_t + \beta_2^I GDPV_{t-1} + \beta_3^I I_{t-1} + \beta_4^I D_{97} GDPV_t + \beta_5^I D_{08} GDPV_t + \epsilon_t^I$$

$$(A2) \quad C_t = \alpha^C + \beta_1^C GDPV_t + \beta_2^C GDPV_{t-1} + \beta_3^C IFM_t + \beta_4^C FX_t + \beta_5^C D_{00} GDPV_t + \epsilon_t^C$$

$$(A3) \quad G_T = \alpha^G + \beta_1^G GDPR_t + \beta_2^G GDPP_t + \beta_3^G D_{90} GDPR_t + \beta_4^G D_{98} GDPR_t + \epsilon_t^G$$

$$(A4) \quad V_t = \alpha^V + \beta_1^V GDPV_t + \beta_2^V IM_t + \beta_3^V EX_t + \beta_4^V IFM_t + \epsilon_t^V$$

$$(A5) \quad E_t = \alpha^E + \beta_1^E CPV_t + \beta_2^E CPI_t + \beta_3^E YCB_t + \beta_4^E E_{t-1} + \epsilon_t^E$$

$$(A6) \quad S_t = \alpha^S + \beta_1^S TA_t + \beta_2^S TA_{t-1} + \beta_3^S D_{91} TA_t + \epsilon_t^S$$

$$(A7) \quad P_t = \alpha^P + \beta_1^P GDPV_t + \beta_2^P D_{98} GDPR_t + \epsilon_t^P$$

$$(A8) \quad TR_t = \alpha^{TR} + \beta_1^{TR} IM_t + \beta_2^{TR} ETR_t + \beta_3^{TR} D_{98} IM_t + \epsilon_t^{TR}$$

$$(A9) \quad L_t = \alpha^L + \beta_1^L CPV_t + \beta_2^L BTR_t + \beta_3^L D_{97} CPV_t + \epsilon_t^L$$

세수추계 모형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설명 및 출처, 자료가 포괄하는 기간은 [표 A-2]에 수록하였다. 세목별 세수 추계 모형의 회귀분석에 사용된 통계자료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1970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1970년 이후에 처음 부과된 세목들은 통계자료가 가용한 시점부터 2008년까지를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표 A-1] NABO 국세수입 추계모형 추정결과

	$\hat{\alpha}_i$	$\hat{\beta}_{i,1}$	$\hat{\beta}_{i,2}$	$\hat{\beta}_{i,3}$	$\hat{\beta}_{i,4}$	$\hat{\beta}_{i,5}$	$R^2$
소득세 <sup>1)</sup>	-0.63 ** (0.22)	1.01 ** (0.32)	-0.97 ** (0.31)	0.90 ** (0.06)	-0.01 ** (0.00)	0.01 * (0.00)	0.99
법인세	1.50 ** (0.66)	1.10 ** (0.43)	0.57 (0.35)	-0.38 ** (0.10)	-1.13 ** (0.10)	0.04 ** (0.00)	0.99
상속증여세	-14.75 ** (2.09)	1.24 ** (0.22)	1.60 ** (0.21)	0.04 ** (0.01)	-0.03 ** (0.01)		0.96
부가가치세	-2.49 ** (0.17)	1.44 ** (0.11)	0.57 ** (0.08)	-0.57 ** (0.07)	-0.38 ** (0.07)		0.99
개별소비세	1.48 ** (0.41)	0.74 ** (0.09)	-0.96 ** (0.28)	-1.59 ** (0.50)	0.38 ** (0.07)		0.95
증권거래세	-7.61 ** (0.43)	1.02 ** (0.07)	0.14 * (0.07)	-0.07 ** (0.01)			0.95
인지세	-3.56 ** (0.11)	0.90 ** (0.01)	-0.01 ** (0.00)				0.99
관세	-2.31 ** (0.01)	1.00 ** (0.01)	1.01 ** (0.00)	0.00 ** (0.00)			0.99
주세	-2.13 ** (0.63)	0.84 ** (0.02)	0.33 ** (0.11)	-0.01 * (0.00)			0.99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임.

2.  $i$ 는 세목을 의미함

3. \*\*는 1%,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1) 소득세의 전년도 경상 GDP에 대한 계수( $\hat{\beta}_{i,2}$ )가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 전년도 경상 GDP의 계수 값이 음이라는 것은 경상 GDP가 직전연도 비해 1% 더 상승하면 간접적으로 당해연도 소득세수를 직전연도에 비해 직전연도 경상 GDP의 계수 값만큼 추가적으로 증가시킨다.

경상 GDP의 기준연도가 2000년에서 2005년으로 변경이 되어 2000년 이전의 경상 GDP 계열 통계자료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한 보간법을 이용하여 연장하였다. 한국은행에서는 2009년 말에 새로운 기준연도의 GDP 계열 통계자료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그렇게 되면 발표되는 신계열 GDP 계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좀 더 엄밀한 분석을 통한 세수추계 모형 추정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식 (A1)~(A9)까지 추정한 추정결과는 [표 A-1]에 수록되어 있다.

14개 세목 중 세수추계 모형을 통해 추계되지 않은 4개 세목과 과년도수입에 대한 추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전망한 유종별 수요량에 각 유종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수를 전망하였다.<sup>14)</sup> 전망 기간 중에 세율이 변하는 경우, 해당세율의 가중평균을 구하여 적용하였다.

부가세(surtax)인 농어촌특별세는 내국세 및 지방세 그리고 관세를 포함하는 조세감면액, 저축감면,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취득세, 레저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부과된다. 농어촌특별세의 세수는 과세표준별로 구한 과세비율의 평균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또 다른 부가세인 교육세는 경상 GDP에 대한 탄성치를 이용하여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전망은 과세대상자의 세대별 부동산 보유 현황, 공시가격, 과표적용률 등 미시자료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러한 자료를 자체적으로 전망하기에는 자료나 인력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수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전망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보고서의 2009년 국세수입은 2009년 8월 현재 세수진도비 결과를 참고하여, 모형에 의해 추정된 국세수입 전망결과를 가정에 근거하여 미세하게 조정하여 전망하였다. 또한 2009년 이후 국세수입 전망은 모형에서 전망된 결과에 세법개정 세수효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것이다.

---

14) 교통에너지환경세수 전망시 사용하는 유종별 수요량은 전체 수요량에서 면세유 부분을 제외한 수요량이다.

[표 A-2] 세수추계 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대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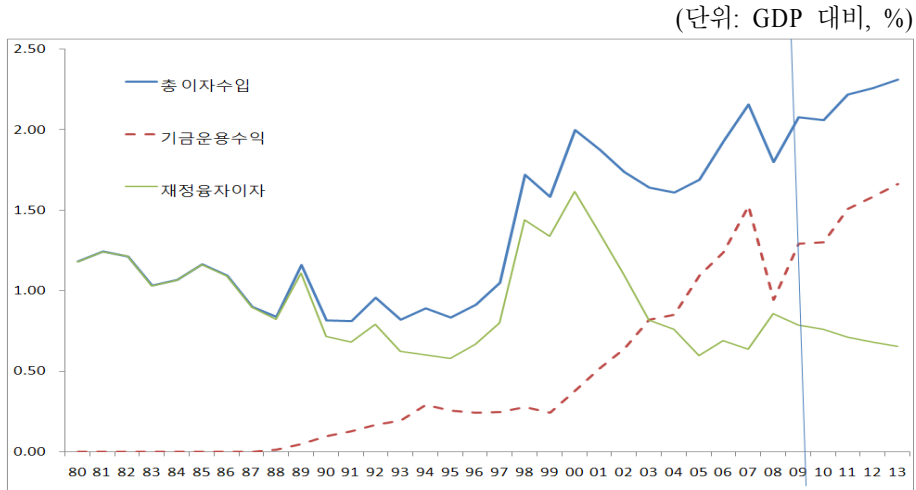
변수	변수설명	출처	기간
$I_t$	ln(소득세)	국세통계연보	1970 ~ 2008
$C_t$	ln(법인세)	국세통계연보	1970 ~ 2008
$G_t$	ln(상속증여세)	국세통계연보	1970 ~ 2008
$V_t$	ln(부가가치세)	국세통계연보	1970 ~ 2008
$E_t$	ln(개별소비세)	국세통계연보	1970 ~ 2008
$S_t$	ln(증권거래세)	국세통계연보	1970 ~ 2008
$P_t$	ln(인지세)	국세통계연보	1970 ~ 2008
$L_t$	ln(주세)	국세통계연보	1970 ~ 2008
$TR_t$	ln(관세)	관세청	1970 ~ 2008
$GDPV_t$	ln(경상 GDP)	한국은행	1970 ~ 2008
$GDPR_t$	ln(실질 GDP)	한국은행	1970 ~ 2008
$GDP_t$	ln(GDP 디플레이터)	한국은행	1970 ~ 2008
$CPV_t$	ln(경상민간소비)	한국은행	1970 ~ 2008
$IM_t$	ln(수입, 통관기준)	한국은행	1970 ~ 2008
$EX_t$	ln(수출, 통관기준)	한국은행	1970 ~ 2008
$IFM_t$	ln(경상설비투자)	한국은행	1970 ~ 2008
$FX_t$	ln(대미달러환율)	한국은행	1970 ~ 2008
$YCB_t$	ln(1+회사채수익율/100)	한국은행	1970 ~ 2008
$TA_t$	ln(주식거래대금)	한국거래소	1970 ~ 2008
$CPI_t$	ln(소비자물가지수)	한국은행	1970 ~ 2008
$BTR_t$	맥주세율	주세법	1970 ~ 2008
$ETR_t$	실효관세율	관세청	1970 ~ 2008
$D_{##}$	$1(t \geq ##)$		

## A-2. 세외수입 등 전망방법

### 가. 이자수입

이자수입은 두 부분으로 분해될 수 있다. 하나는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이 보유한 재정용자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며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보유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기금 운용수익이다. [그림 A-1]은 이자수입을 이처럼 분해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1990년대 말까지 이자수입의 대부분은 재정용자수입이 차지하고 있었다. 재정용자 이자는 1990년대 말 GDP 대비 1.7%까지 급증하였다가 2000년 이후 재정용자지출 감소 및 용자금리 하락으로 감소세로 반전하였다. 반면 기금 운용수익은 기금 적립금 증가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급감하였다.

[그림 A-1] 이자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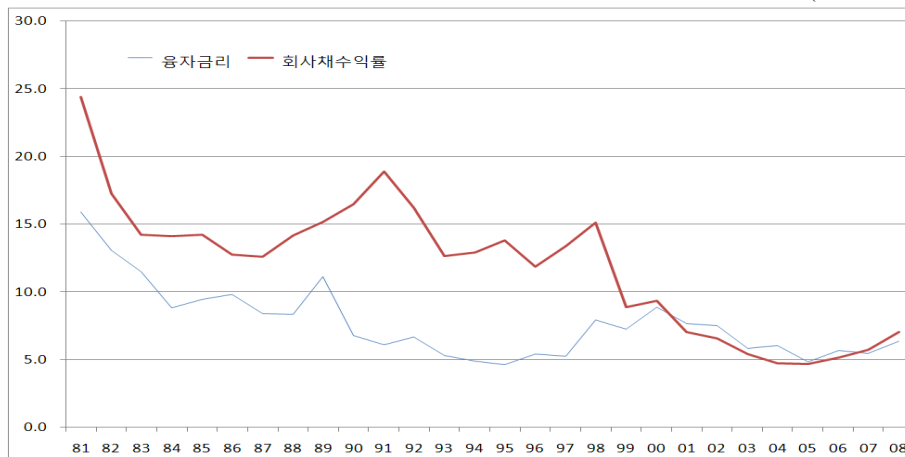
주: 1) 2009년 이후는 전망

2010~2013년 기금 운용수입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기금의 적립기금에 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여기에서 수익률은 회사채수익률을 사용하였다.

재정용자 이자수입은 순용자 전망에서 전망한 용자잔액에 재정용자이자 금리를 곱하여 전망하였다. 재정용자이자 금리는 회사채이자율에 최근 3년간 회사채이자율 대비 용자이자 간 격차를 반영하였다. 용자금리는 1990년대까지 회사채 수익률과 큰 차이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에는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sup>15)</sup> 이러한 용자금리의 상승은 재정용자로 인한 금융시장의 왜곡과 재정부담의 증가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sup>16)</sup>

[그림 A-2] 용자금리와 회사채 수익률

(단위: %)



주: 1)용자금리 = 재정용자이자/용자잔액  
2)재정용자이자 = 총이자수입 - 기금운용수익

15) 용자금리는 재정용자 이자수입을 용자잔액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16) 예컨대 채특 용자를 살펴보면, 조달금리 대비 용자금리는 1996년 50~70%에서 1998년 70~80%, 1999년 80%로 상승하여 용자금리와 시장금리 사이의 격차가 좁혀져 왔다.

[표 A-3] 이자수입 전망결과

(단위: 조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증가율 (09-13)
이자수입	21.7	22.9	26.1	28.3	31.0	(9.3)
(GDP대비)	(2.1)	(2.1)	(2.2)	(2.3)	(2.3)	
기금운용수익	13.5	14.5	17.8	19.8	22.3	(13.4)
응자이자수입	8.2	8.4	8.4	8.5	8.7	(1.5)

#### 나. 공무원 및 복지기금 기여금

공무원 및 복지기금 기여금 전망은 공무원 수, 공무원 봉급 등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공무원 봉급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에 연간 임금상승률 전망에 기초한 보수월액 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표 A-4] 공무원 및 복지기금 기여금 전망결과

(단위: 조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증가율 (09 ~ 13)
공무원및복지기금기여금	6.4	6.5	6.8	7.1	7.4	(3.8)
(GDP 대비)	(0.6)	(0.6)	(0.6)	(0.6)	(0.6)	

#### 다. 한은잉여금

한국은행은 전년도 한은잉여금 중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을 적립한 후 잔여금액을 전액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고 있다<sup>17)</sup>. 이러한 한은잉여금은

17) 법정적립금 규모는 당기순이익의 10%로 정해져 있는 반면 임의적립금의 규모는 향후 통화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기재부와 한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1999 ~ 2003년간 연간 1 ~ 3조원에 달하였으나, 2004년 이후 한은 수지 적자로 2005 ~ 2008년간 한은잉여금 수입은 영(0)이었다. 2008년에는 유가증권매매익, 외환매매익 증가로 3.4조원의 당기순익이 발생함에 따라 이 가운데 1.5조원을 2009년 추경예산시 정부로 이입하였다.

[표 A-5] 한국은행의 정부세입 납부액(한은잉여금) 추이

(단위: 십억원)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예산
1,306	2,000	1,000	3,762	2,551	1,877	-	-	-	-	1,500

2009년 반기 결산 결과 금년 한은 수지는 흑자가 예상되지만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리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은잉여금 수입은 영(0)으로 설정하였다.

[표 A-6] 한국은행의 당기순익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 추이

(단위: 십억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당기순이익	2,175.0	-150.2	-1,877.6	-1,759.6	-444.7	3,402.9
유가증권매매익	2,637.1	1,055.2	719.1	564.6	899.8	2,984.3
외환매매익	408.2	37.8	12.9	9.6	0.0	1,094.8
미처분이익잉여금	2,175.0	-150.2	-1,877.6	-1,759.7	-444.7	3,402.9
임의적립금적립 1)	80.4	-150.2	-1,877.6	-1,580.7	-444.7	1,562.6
법정적립금적립 1)	217.5			-179.0		340.3
정부세입납부	1,877.1					1,500.0

주: 1) (-)는 적립금 이입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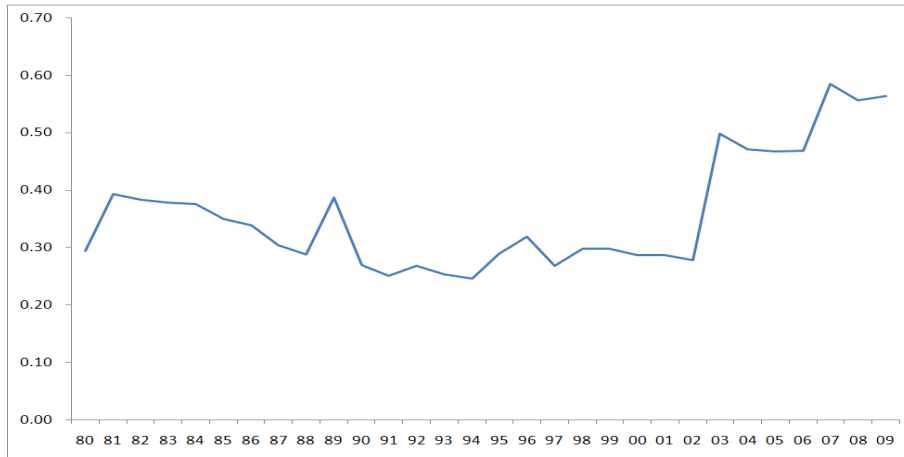
## 라. 여타 세외수입

수수료·요금 등 비영업실적 판매, 벌금 및 몰수금 등의 기타 세외수입은 과거추세, 경상 GDP 등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전망하였다.

수수료·요금 등 비영업실적판매는 병원수입, 교도소 수입, 입장료·관람료 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국립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항공·항만 용수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비영업실적판매 수입은 1980년대 이래 GDP 대비로 0.3% 내외의 수준에 머물다가 2003년 이후 급등하여 GDP 대비 0.5% 수준에 이르고 있다. 1980~2008년간 비영업실적판매의 경상 GDP에 대한 탄성치는 1.02로서 일(1)에 가깝다. 본고에서는 2003년 이후의 제도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연도더미, 경상 GDP, 과거추세를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하여 전망하였다.

[그림 A-3] 수수료·요금 등 비영업적 판매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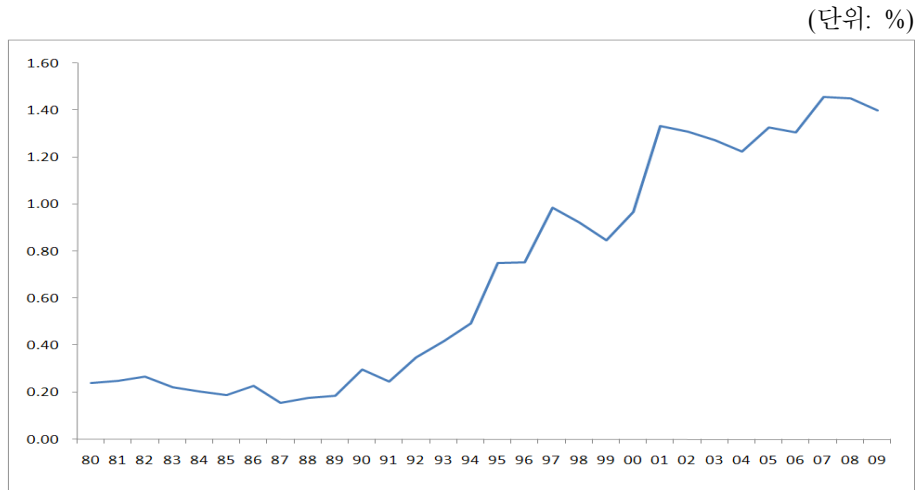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벌금 및 몰수금은 1980년대 중 GDP 대비로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 빠르게 증가하였다. 실제로 1990~2001년 중 벌금 및 몰수금의 경상 GDP에 대한 탄성치는 2.60에 달하였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이러한 높은 탄성치는 안정화되어 2001~2008년 중에는 1.20 수준으로 하

락하였다. 본고에서는 2001~2008년 중의 탄성치를 가정하여 2009년 이후의 벌금 및 몰수금을 전망하였다.

[그림 A-4] 벌금 등 추이(GDP 대비 비중)



정부출자수입은 정부출자에 대한 이익배당수입 및 관계법에 의한 출자업체로부터의 수입으로 구성된다. 정부출자기관 배당은 출자기관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 후 주주총회의결 또는 결산승인을 거쳐 확정되므로 관련 정보 없이는 추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과거 5년간 출자배당수입의 평균치가 향후 2010~2013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하였다. 토지 및 건물 대여료 수입은 과거 추세치를 반영하여 회귀분석하여 전망하였다.

[표 A-7] 여타 세외수입 전망결과

(단위: 조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증가율 (09-13)
정부출자수입	0.6	0.8	0.8	0.8	0.8	(8.8)
수수료·요금·비산업적 판매	5.8	5.6	6.0	6.4	6.8	(4.1)
벌금 및 수금	14.6	14.8	15.7	16.7	17.9	(5.2)

#### 마. 중앙정부 자본수입

자본수입은 향후 정부소유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매각계획 등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과거추세 등을 감안하여 회귀분석하여 전망하였다. 여기에는 2010~2012년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따른 관유물 매각대 수입 증가분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표 A-8] 중앙정부 자본수입 전망결과

(단위: 조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증가율 (09~13)
중앙정부 자본수입	2.1	3.5	3.7	3.9	2.3	(2.5)
(GDP 대비)	(0.2)	(0.3)	(0.3)	(0.3)	(0.2)	

#### 바. 용자회수 전망

##### (1) 순용자의 구성

다음 식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용자는 용자지출과 용자회수의 차이로

계산된다. 본고에서는 향후의 순융자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융자지출을 다음 식 (2)와 같이 분해하기로 한다. 융자회수 역시 식 (3)과 같이 분해한다.

$$(1) \text{ 순융자} = \text{융자지출} - \text{융자회수.}$$

$$(2) \text{ 융자지출} = \text{금융구조조정 융자} + \text{출자} + \text{재정융자지출.}$$

$$(3) \text{ 융자회수} = \text{민영화수입} + \text{재정융자회수.}$$

식 (2)에 따르면 융자지출은 금융구조조정 융자, 출자, 재정융자지출로 구분된다. 먼저 금융구조조정 융자는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해 정부가 재정융자특별회계(재특)를 통해 제공한 융자를 말한다. 융자지출의 두 번째 구성요소인 출자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각종 공기업에 대한 출자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융자지출에서 금융구조조정 융자와 출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재정융자지출로 부르기로 한다.

한편 식 (3)에 따르면 융자회수는 민영화수입과 재정융자회수로 구성된다. 민영화수입은 당해연도에 회수된 출자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재정융자회수는 전체 융자회수 가운데 민영화수입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표 A-9]은 식 (2)와 식 (3)을 이용하여 재정융자지출과 재정융자회수를 각각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또 [그림 A-5]는 이들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그림 A-5]에 따르면 재정융자지출은 1999년에 최고조에 달한 후 감소하였다가 2009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편성으로 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재정융자회수는 재정융자지출보다 훨씬 낮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재정융자지출이 상당한 시차를 가지고 회수됨을 의미한다.<sup>18)</sup> 과거의 재정융자지출로부터 향후의 재정융자회수를 전망함에 있어서는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8) 물론 이는 재정융자지출 가운데 많은 부분이 상환되지 않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회수율은 100%에 가까우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로 한다.

[표 A-9] 재정용자지출과 재정용자회수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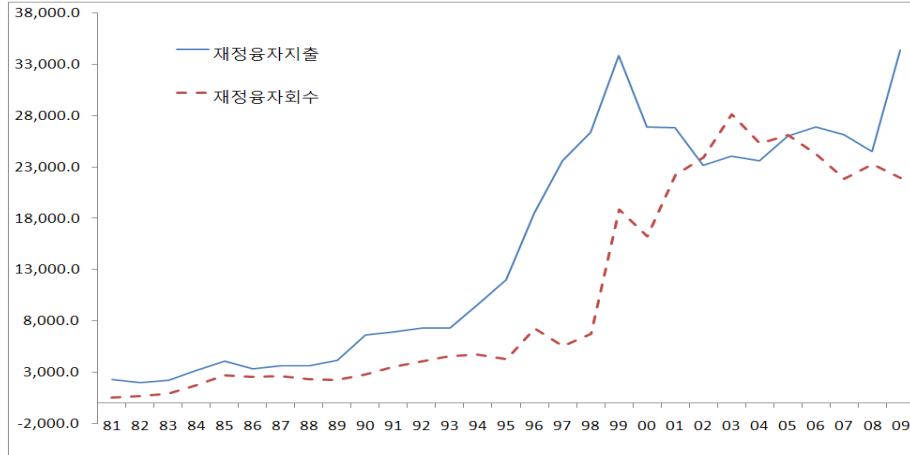
연도	용자지출	용자회수	순용자	출자	금융구조 조정용자	재정용자 지출	민영화 수입	재정용자 회수	재정 순용자
	(a)	(b)	(c=a-b)	(d)	(e)	(F=a-d-e)	(g)	(h=b-g)	(i=f-h)
85	4,187	2,657	1,530	131		4,057	na	2,657	1,400
86	3,503	2,525	978	166		3,337	na	2,525	812
87	3,816	2,580	1,237	215		3,601	na	2,580	1,022
88	3,776	2,349	1,428	169		3,607	-59	2,290	1,317
89	4,726	2,825	1,901	617		4,110	-639	2,186	1,923
90	7,094	2,802	4,292	426		6,669	0	2,802	3,866
91	8,175	3,482	4,693	1,286		6,889	0	3,482	3,407
92	8,190	3,972	4,217	901		7,289	0	3,972	3,317
93	8,594	4,557	4,036	1,328		7,266	0	4,557	2,709
94	10,905	4,667	6,239	1,329		9,577	0	4,667	4,910
95	12,946	4,215	8,732	924		12,023	0	4,215	7,808
96	19,506	8,399	11,108	1,010		18,496	-1,040	7,358	11,138
97	24,761	6,038	18,723	1,150		23,611	-561	5,477	18,134
98	31,375	6,935	24,441	3,638	1,325	26,413	-239	6,695	19,718
99	41,809	22,057	19,752	3,962	3,980	33,866	-3,249	18,808	15,058
00	36,063	16,222	19,841	3,552	5,571	26,939	-40	16,182	10,757
01	35,961	25,884	10,077	3,063	6,038	26,861	-3,700	22,184	4,677
02	31,063	30,627	436	2,584	5,287	23,193	-6,700	23,927	-735
03	27,222	29,731	-2,509	3,121	0	24,101	-1,600	28,131	-4,030
04	26,689	25,292	1,398	3,080	0	23,610	na	25,292	-1,682
05	29,103	26,075	3,028	3,080	0	26,023	na	26,075	-52
06	29,972	24,225	5,746	3,080	0	26,892	na	24,225	2,667
07	29,514	21,820	7,693	3,346	0	26,167	na	21,820	4,347
08	28,363	23,257	5,105	3,872	0	24,491	na	23,257	1,233
09	41,298	21,900	19,398	6,881	0	34,418	na	21,900	12,517

주: 1) na = 자료입수 불가능 (이하 계산에서 영(0)으로 가정).

2) 2007 ~ 2009년은 예산 기준.

[그림 A-5] 재정용자지출과 재정용자회수

(단위: 십억원)



주: 2007 ~ 2009년은 예산

#### 사. 재정용자지출과 재정용자회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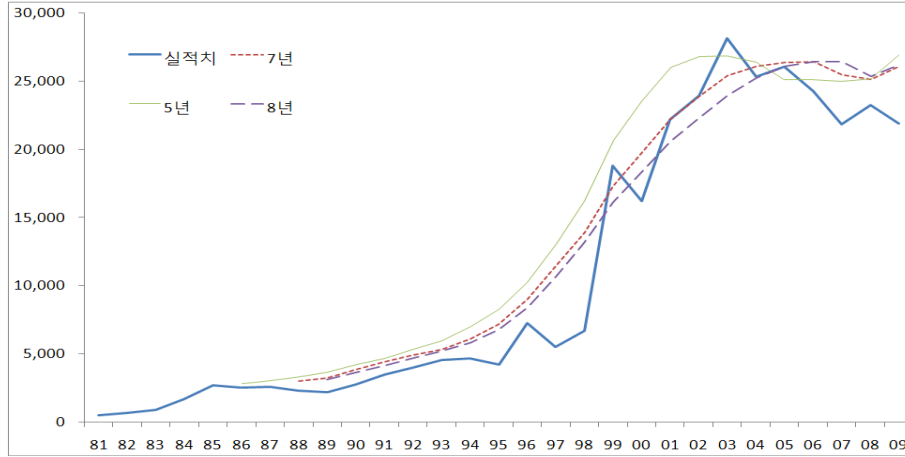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재정용자지출과 재정용자회수를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전망하였다. 먼저 재정용자지출은 2000~2009년의 평균치가 2010년 이후 지속된다고 가정하였다. 즉, 명목금액으로 재정용자지출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인데 이는 실질가치나 GDP 대비로는 재정용자지출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정용자지출이 어떻게 회수될 것인가를 전망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실제 자료로부터 각 연도 재정용자지출의 회수기간별 비중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재정용자지출의 회수기간별 비중을 파악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험해 보았다.

먼저 용자지출이 회수되기까지 몇 년의 시차를 갖는지 시산해 보기 위해 용자지출의 단순이동평균과 용자회수 실적치를 비교하였다. 5년·7년·8년 재정용자지출의 단순이동 평균을 비교한 결과 7년 평균이 재정용자회수 실적치와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수기간은 7년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A-6] 재정용자지출 단순이동평균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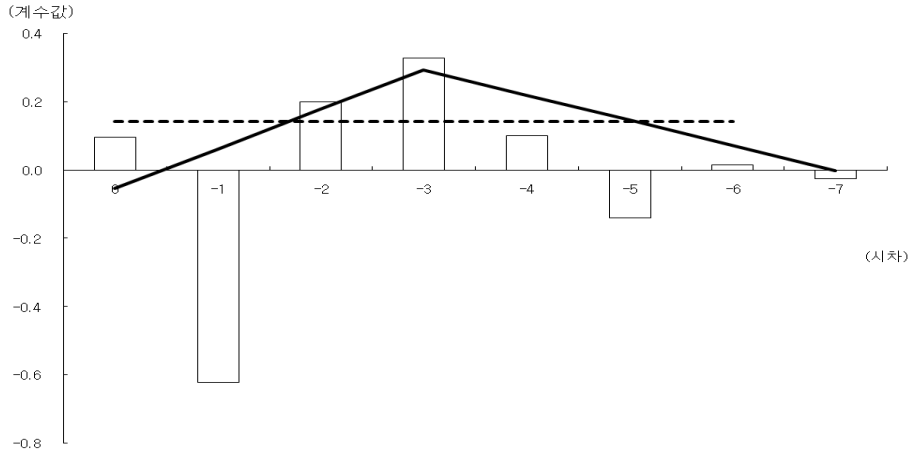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연도별 용자회수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험해보았다. 첫째는 단순이동평균방법(simple moving-average)이다. 이 방법에서는 t년의 재정용자회수(R)가 t년에서 t-6년까지의 7년간의 재정용자지출(X)의 단순평균과 같다고 가정한다.

$$(4) R(t) = (1/7)(X(t) + X(t-1) + X(t-2) + X(t-3) + X(t-4) + X(t-5) + X(t-6)).$$

이러한 가정은 어느 해에 발생한 재정용자지출이 그 해 및 그 후 6년에 걸쳐 균등한 액수로 회수됨을 의미한다. 즉, R(t)를 종속변수로 하고 X(t),...,X(t-6)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모든 독립변수의 계수가 동일하게 1/7로 나타나야 한다.



[그림 A-7] 재정융자회수 전망식의 계수값



그러나 실제로는 이 가정이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R(t)$ 를 종속 변수로 하고  $X(t), \dots, X(t-6)$ 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X(t-3)$ 의 계수추정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sup>19)</sup>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둘째 방법에서는 계수값들이  $X(t)$ 에서  $X(t-3)$ 까지 선형으로 증가한 후 다시  $X(t-7)$ 까지 선형으로 감소하고  $X(t)$ 의 계수값은 영(0)이며, 모든 계수값의 합이 일(1)이라는 제약을 부과하여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모든 계수값의 합이 일(1)이라는 것은 어느 해에 발생한 재정융자지출이 그 해부터 7년간 모두 회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첫째 방법인 단순이동평균과 마찬가지로이지만  $X(t), \dots, X(t-6)$ 에 대해 균등한 가중치(1/7)가 아닌 서로 다른 가중치가 주어진다 점에서 가중이동평균방법(weighted moving-average)이라 불릴 수 있다.

$$(5) R(t) = (2/7)\{(0)X(t) + (1/3)X(t-1) + (2/3)X(t-2) + X(t-3) + (3/4)X(t-4) + (2/4)X(t-5) + (1/4)X(t-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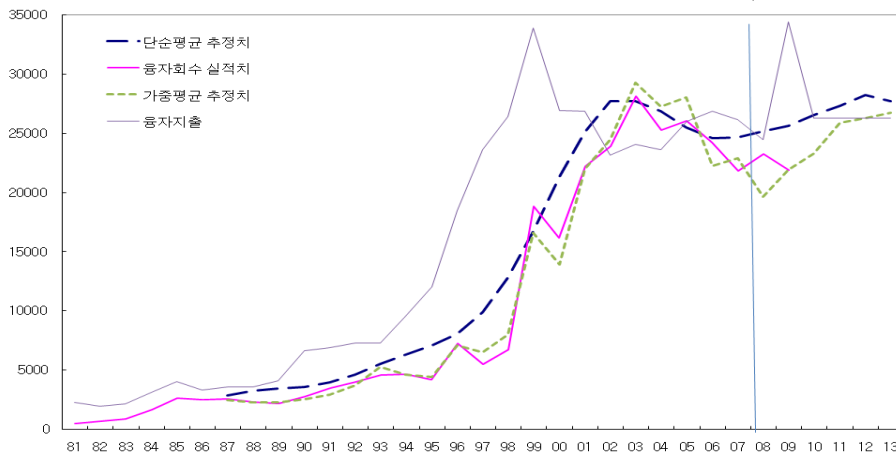
이러한 방법에 의해 재정융자회수를 전망한 결과는 다음 [그림 A-8] 비교

19) 모든 계수값이 1/7로 동일하다는 것을 귀무가설( $H_0$ )로 설정하여 F-검정을 실시하면 10% 수준에서  $H_0$ 이 기각된다.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첫째 방법(단순이동평균)은 2007년 이후의 기간 중 재정용자회수를 과대 전망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방법(가중평균 회귀식)은 첫째 방법에 비해 재정용자회수를 더 잘 전망하고 있어 가중평균 회귀식에 의한 전망치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림 A-8] 재정용자회수 전망결과

(단위: 십억원)



#### 아. 용자지출과 용자회수의 전망

용자지출 및 용자회수는 각각 위의 식 (2) 및 식 (3)에 따라 전망하였다. 먼저 용자지출의 경우 금융구조조정 용자는 정부계획에 따라 2004년 이후 영(0)으로 설정하였다. 또 출자는 2000년 이후 연도별 출자가 3조원 내외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00~2009년 평균값인 3.6조원으로 설정하였다. 이 역시 명목금액이므로 실질금액이나 GDP 대비로는 출자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2010년 이후의 재정용자지출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2000~2009년 평균값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용자회수의 경우 민영화수입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민영화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영(0)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재정용자회수는 앞에서 셋째 방법에 의해 전망한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전망한 용자지출 및 용자회수는 다음 [표 A-10]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용자지출은 29.8조원에서 안정되고 있으며, 용자회수는 26조원 내외에서, 순융자는 3조원 내외에서 안정되고 있다.

[표 A-10] 재정용자지출과 재정용자회수 전망

(단위: 십억원)

	용자 지출 (A)	용자 회수 (B)	순융자 (C)	출자 (D)	재정용자 지출 (F)	재정용자 회수 (H)	재정 순융자 (I)	재정용자 잔액 (J)
2009	41,298.5	21,900.4	19,398.0	6,880.8	34,417.6	21,900.4	12,517.2	149,417
2010	29,835.3	24,500.0	5,335.3	3,565.9	26,269.4	23,300.0	2,969.4	152,387
2011	29,835.3	25,891.3	3,943.9	3,565.9	26,269.4	25,891.3	378.1	152,765
2012	29,835.3	26,271.4	3,563.9	3,565.9	26,269.4	26,271.4	-2.0	152,763
2013	29,835.3	26,712.6	3,122.7	3,565.9	26,269.4	26,712.6	-443.2	152,320

주: 1)  $A = D + F$ ,  $B = H$ ,  $C = A - B$ ,  $I = F - H$ ,  $J = I +$  전년도 J.

2) 2009년은 예산

[표 A-10]에는 또한 재정용자 잔액도 제시되어 있다. 재정용자 잔액은 재정경제부가 발간하는 『채권현재액총계산서』에 나타난 용자회수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즉, 2009년의 용자회수금에 2010년 이후의 재정순융자(I월)를 누적하여 2010년 이후의 재정용자 잔액(J월)을 구하였다. 이렇게 구한 재정용자 잔액에 재정용자 금리를 곱하여 재정용자 이자수입을 계산한다.

## 연구진

### 연구 및 편집 총괄

박종규(경제분석실장)

### 집필자

이상훈(세수추계팀 경제분석관)

심혜정(세수추계팀 경제분석관)

성명기(세수추계팀 경제분석관)

### 연구지원

양승미(세수추계팀)

김지연(세수추계팀)

## NABO 2009 ~ 2013년 세수추계 분석

---

발 간 일	2009년 11월 16일
편 집	경제분석실 세수추계팀
발 행 인	신 해 룡
발 행 처	<b>국회에산정책처</b>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2070·3114
인 쇄 처	도서출판 <b>한학문화</b> (TEL 02·313·7593)

---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팀 (TEL 02·788·4744)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ISBN 978-89-6073-258-2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09